지구촌비전

Vol. 285
2024. 1월호
민족치유 세상변화



01



02


03


04

30 YEARS ANNIVERSARY

지구촌, 은혜로(路) 30년

개척 및 태동기
1993.11-1995.7

01 1994. 1. 9 첫 주일 오후 300여명의 성도들과 탄생예배 드림
02 1993. 12. 15 교육관 및 사무실로 사용된 선경스매트 공장 전경
03 1993. 11. 13 이동원 목사의 귀국에 김포공항으로 마중나온 성도들
04 1993. 11. 14 지구촌교회 개척 준비에 모인 65명의 성도들



이동원 원로목사

새해 God생을 살아갑시다

"나 오늘부터 god생 살거야"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다 합니다.
완벽한 인생을 살고 싶은 소원입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못한 자들의 허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인도 따라 삶은 가능합니다.
만일 우리가 다시 말씀과 기도로 산다면…
날마다 말씀하시는 God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로 그 분께 나아간다면…

2024년, 푸른 용의 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용은 언제나 사단의 상징입니다.
사단의 활동이 더 치열한 해가 되겠지요.
그러나 사단 위에 계신 분을 바라본다면…

그분의 지시와 인도 따라 걸을 수 있다면
금년도 화룡점정의 해를 맞을 것입니다.
부디 God생을 살아가십시다.
완벽이 아닌 건강을 구하는 새해를!

—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며 지구촌

Contents

지구촌교회 가족이면 누구나 필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원고접수 및 안내'를 참고하세요.

표2 원로목사 새해 인사
God생을 살아가십시다

2 담임목사 새해 인사
주님의 이름으로 새해 문안드립니다.

4 지구촌, 은혜로 30년

6 2024 사역 일정

8 목회지원회 새해인사
8 한 단계 도약하는 의미 있는 한 해로 자리 잡길
9 겸손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섬기겠습니다
10 신임 목회지원회위원 인사
10 목회지원회를 섬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11 영구제직 신년인사
11 축복의 열매를 맺는 은백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2 기도의 방패 높게 들게 하옵소서
13 서로 서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은혜회
14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지구촌교회를 바라보며
15 희망의 새해에는
16 신실한 청지기로의 부르심
17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18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맺기를 기대하며

19 어린이지구
19 감사와 기쁨을 배웠던 시간
20 천사를 만나고 왔습니다
22 드림선교단 섬김이로 인도네시아 발리를 다녀오며

26 미취학지구
미취학지구를 소개합니다!

28 목장이야기
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되어요

30 예배부
Christmas Special Enter His Courts

32 지구촌소식
32 2023 성탄축제 '반짝반짝 크리스마스'
33 2023 송구영신 예배 & 2024 신년 예배
34 2023 청지기 부흥회

35 내평생의말씀

38 국내전도부
38 2023 지구촌 협력미자립교회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만나
42 새해! 새로운 시작!

45 전도폭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48 지구촌소식
대한민국 피로회복 FOR KIDS+

52 교우문단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을 맞이하며

54 블레싱, 못다한 이야기

68 지구촌 갤러리
68 단번에 영원히 (Once for All)
69 주께로 가까이 (Close to Thee)

70 마음 치유 클리닉
이상적인 엄마와 감성적인 딸

73 사진으로보는 은혜의 단상
칭찬은 사랑입니다

74 시네마스토리
나의 산티아고

76 평생교육원 강좌 탐방
기타 연주로 하나님께 찬양을!

78 의학상식
왜 밤에 감기 증상이 더 심해지는가요?

82 지구촌사회복지재단
우리 가족에게 첫 번째 여행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4 지구촌공동체 성경읽기
가로세로 성경퍼즐

지구촌교회는
복음전도와 이웃 사랑으로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교회소개보기

지구촌비전 통권 285호 2024년 1월 7일 발행 **비매품**
발행인 최성은 편집인 김영관 디자인 박은규
발행처 지구촌교회 역사자료문서선교팀
전화 031-710-9300 www.jiguchon.or.kr

할렐루야!
사랑하는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새해 문안드립니다



최성은 담임목사

다사다난했던 2023년도가 저물고, 다시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도는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간 상흔들이 곳곳에 있었지만, 모든 것들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새로운 소망을 향하여 몸부림치는 한 해였습니다.

이제 맞이한 2024년, 우리 교회에는 특별한 해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 지구촌교회 공동체가 탄생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다음 세대와 주변 이웃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실상 느헤미야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기념일에는 항상 **세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과거를 생각하며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지금 당면한 현실과 나의 상태를 돌아보며 진단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바라보며 준비하는 일입니다.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구약의 예레미야는 남유다 멸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다섯 명의 왕이 통치하던 기간에 활동하면서, 남유다를 향해 진노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던 불운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한마디로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하나님께 자신들의 백성들을 살려 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때로는 받은 사명이 너무도 힘들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더 이상 예언을 하지 않겠다고 대항하기도 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무리를 저주하는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과거를 보아도, 지금 현재를 보아도, 그리고 내일 미래를 보아도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았던 까닭입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주변으로는 자기 민족을 사랑했고, 악한 무리에 대해서는 거룩한 분노를 가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레미야는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11).

우리는 때로 우리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보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미워하셔서 늘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일생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심판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의 한복판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멸망과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평안과 희망입니다. 소망에 찬 내일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나간 세월 동안 어떤 일을 겪었던지 오늘 이 자리에서 뒤를 돌아보면 나는 부족했지만 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오늘도 내일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인자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오늘도 내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흐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목장 공동체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시대는 어렵고 악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항상 옳으십니다. 저는 올 한 해도 그 하나님을 다시 붙들려 합니다. 저와 함께 그 길을 같이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2024년 대망의 한 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최성은 담임목사 드림 지구촌

30 YEARS ANNIVERSARY

지구촌, 은혜로(路) 30년



은혜路 발자욱

- 30주년 기념 책자 발간
- 30주년 기념 사진전 개최
- 30주년 기념 영상 제작

감사路 발걸음

성도와 함께하는 30주년	30주년 기념 바이블 페스티벌 30주년 중보기도 컨퍼런스 지구촌 목자의 밤
교단과 함께하는 30주년	블레싱 뱁티스트 국내 전도 협력 미자립교회 목회자 수련회 교단과 함께하는 MET 선교 파송 주일
이웃과 함께하는 30주년	경기도 시민과 함께 하는 기념 음악회 사랑의 장바구니 사역 명절 외국인 다문화 행사

내일路 발돋움

다음 세대(다문화) 비전	느헤미야 프로젝트 착공 신혼부부 지구 개설 다문화 센터 건립
복음 전도 비전	빵 두유 공장 사역센터 특별 지원 미자립교회 200개 후원
해외선교 비전	해외 30개 마을 입양 운동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2024년은 우리 교회 창립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30년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지구촌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은혜의 발자국'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리며, 또한 모든 지구촌 가족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지구촌교회는 앞으로의 30년을 바라보며 새로운 내일을 꿈꿉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느헤미야 프로젝트 등 30주년 기념 사역들을 통해
교회를 넘어서 교단과 이웃들을 섬기는 사랑과 '감사의 발걸음'을 걷기 원합니다.

이는 지구촌의 새로운 '내일로 발돋움'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선한 일에 모두 힘을 내어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구촌교회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해 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구촌교회 담임목사 최성은

2024 사역 일정

1월 | 30주년 신년축복 특별새벽기도회, 2024 겨울 바이블 페스티벌
2월 | 마을장 수련회
3월 | 30주년 지구촌 목자의 밤, 부활주일 찬양예배, 느헤미야 프로젝트 착공(예정)
5월 | 30주년 주일예배 및 주일 축제 한마당, 기념 책자 발간, 기념 사진전
30주년 중보기도 컨퍼런스
6월 | 선교통일주간, MET 선교 파송 주일, 빵두유 공장 사역센터 특별 지원
7월 | MET 2024 블레싱 뱁티스트(국내 전도), 협력 미자립교회 목회자 수련회
8월 | MET 2024 선교 보고 주일
9월 | 추수감사 특별새벽기도회
10월 | 추수감사 주일예배, 블레싱 2024
11월 | 경기도 시민과 함께 하는 기념 음악회
12월 | 청지기 부흥회, 성탄축제 및 성탄주일, 송구영신예배

2024년도 상반기 사역 일정

월	일자/요일	내용
1	1(월)	신년감사예배
	2(화)~6(토)	신년축복 특별새벽기도회
	9(화)	영구제직 신년하례회
	14(주일)	청지기 주일예배
	17(수)~19(금)	겨울 바이블 페스티벌
	21(주일)	팀사역 OT
	28(주일)	정기제직회
2	15(목)~16(금)	자매 마을장 수련회
	16(금)~17(토)	형제/부부/직장자매 마을장 수련회
	25(주일)	삼일절 주일예배
3	17일(주일)	목장교회 오픈하우스 I / 중보기도 헌신 서약식
	24일(주일)	목장교회 오픈하우스II / 종려주일 침례식
	25(월)~30(토)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29(금)	고난주간 성금요일 예배/주의만찬
	31(주일)	부활주일 찬양예배
4	21(주 일)	장애인 주일예배
5	5(주일)	어린이 주일예배 / 헌아식 / 해피패밀리
	19(주일)	정기제직회 / 글로벌패밀리워십
	20(월)~22(수)	교회 창립 30주년 중보기도 컨퍼런스
	26(주일)	창립30주년 주일예배 / 임직식
6	7(금)	영구제직 수련회
	16(주일)	선교주일(MET 2024 해외선교팀 파송예배)
	19(수)~23(주일)	선교통일주간
	21(금)	MET 2024 기도후원자의 밤
	23(주일)	6.25 주일예배

2024년도 하반기 사역 일정

월	일자/요일	내용
7	6(토)	미취학지구 유아촌 여름축제
	7(주일)	중보기도 헌신서약식
	13(토)	미취학지구 유치촌 여름축제 / 어린이지구 초등촌 여름캠프
	17(수)~19(금)	2024 여름 바이블 페스티벌
	20(토)	미취학지구 영아촌 여름축제 / 어린이지구 소년촌 여름캠프
	21(주일)	MET 2023 국내전도 파송예배
	27(토)	어린이지구 유년촌 여름축제
	27(토)~28(주일)	청소년지구 고3 수련회
8	2(금)~4(주일)	청소년지구 여름수련회
	11(주일)	광복절 주일예배
	25(주일)	MET 2024 보고주일 / 목장교회 오픈하우스 I
9	1(주일)	목장교회 오픈하우스 II
	29(주일)	정기제직회
	30(월)~5(토)	추수감사 특별새벽기도회
10	6(주일)	추수감사 주일예배 / 주의 만찬
	18(금)	블레싱 특별 심야기도회
	27(주일)	블레싱(수지)
	30(수)	블레싱 향수(수지)
11	1(금)	블레싱 시니어
	3(주일)	블레싱(분당)
	6(수)	블레싱 향수(분당)
	10(주일)	청바지 선데이
	14(목)	은하수 기도회
12	2(월)~3(화)	청지기 부흥회
	8(주일)	헌아식
	15(주일)	성탄절 칸례식 / 정기제직회
	20(금)	성탄축제
	22(주일)	성탄주일
	25(수)	성탄절예배
	31(화)	송구영신예배 / 주의 만찬

※교회 상황에 따라 사역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 단계 도약하는 의미 있는 한 해로 자리 잡길



탁군진 장로
신임 목회지원회 실장

2024년도 목회지원실장으로 섬기게 되어 새해 인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 주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는 세속화 물결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 전도와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며 성장해 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이제 새해에는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숙원이었던 '느헤미야 프로젝트'의 첫삽을 뜨고 새로 또 한 단계 도약하는 의미 있는 한 해로 자리 잡길 소망합니다.

" 12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15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18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 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19그 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 시편 51: 12, 15, 18, 19

이러한 때 우리 모두 새해에는 더욱더 화합과 협력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새로운 도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의 결속력 강화와 교회 사역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하는 절실한 때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 성도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주일 교회 예배 전후에 교회 곳곳을 둘러보기를 권합니다. 교육목장, 젊은이목장, 국내전도부, 해외선교부, 복지선교부, 제자훈련 등 각 부서 뿐만아니라, 도서실, 중보기도실, 카페, 식당 등… 애착이

갑니다. 점점 더 내 교회로 느끼게 됩니다. 봉사하고 싶어집니다. 나누게 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헌신하게 됩니다.
이럴 때,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과 입장을 존중하게 되고, 교회 내부 유대감과 소속감이 강화되며, 나의 믿음도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지구촌 가족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늘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촌

겸손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섬기겠습니다



장원태 안수집사
신임 목회지원회 총무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다른 어떤 해보다 중요한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994년 시작된 지구촌교회가 30주년을 맞이하여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되돌아보고, 이후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될 것인지를 점검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될 느헤미야 프로젝트의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목회지원회의 총무로 부르심에 많은 부담과 두려움이 있지만 겸손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섬기겠습니다.
목회지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성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진솔하게 전달드리는 소통의 통로로 더욱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과 방법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 고린도후서 6:10 지구촌

김두현 장로

신임 목회지원회위원



주신 직분 감당할 힘 주시고, 교회의 더 큰 부흥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 겸손히 섬기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윤선영 권사

신임 목회지원회위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청지기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섬기겠습니다.

이남수 권사

신임 목회지원회위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따라 지혜와, 분별력과, 겸손함으로 섬기는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기만 장로

신임 목회지원회위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로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목회지원회를 섬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문동훈 장로

신임 감사



21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로 어수선한 시기에 목지위원으로 섬기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또 한번 감사로 섬기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소중한 헌금의 사용과 진행되는 사역을 잘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프로젝트의 성공과 교회의 성장, 재정의 투명성 확보 등 교회와 성도님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촌

축복의 열매를 맺는 은백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순태장로
은백회장

지난해 이어 부족한 저를 은백회 섬김으로 다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주님께서 지구촌교회 은백회를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이끄셨기에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난날을 뒤돌아보면 순종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워진 만큼 행복합니다.

새해는 다음 세대 공간 마련을 위한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위해 지구촌교회 은백회 장로님들이 기도와 섬김으로 순종하며 즐거이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지혜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올 한 해는 지금까지(2024년도) 은퇴 영구제직(은퇴 장로 및 안수집사)님들께서 은백회 회원으로 본회(정기총회 및 월례회)에 능동적으로 동참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은퇴 후에도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구촌교회 공동체 안에서 봉사 및 각 사역에 참여하여 지구촌교회가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세워지도록 기도합니다.
희망찬 새해는 하나님께서 은백회 회원에게 주신 각 은사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우리 후손들에게 건강한 믿음 생활의 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이제 청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않았던 때를 추억하라." — 학개 2:15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 학개 2:19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 이 말씀을 붙들고 헌신하며 순종하는 지구촌교회 은백회가 축복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도록 소원합니다. 지구촌

기도의 방패 높게 들게 하옵소서



엄정희 권사
분당 은혜회장

폭풍우 비바람 속에서도 지켜 주신 당신의 크신 은혜 사슬되어
당신의 부르심 앞에 차마 No를 못하고
이렇게 당신의 부르심 앞에 섰습니다

우리 지구촌교회는 무슨 사역이든지 했다 하면
한국교회의 모델로 만들어 내는 교회입니다.
저희 은혜회도 그 기준에 걸맞게 잘 세워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세찬 바람 앞에 꺼져 가는 촛불처럼 흔들리는 조국 위하여, 사랑하는 우리 지구촌교회 위하여,
땅끝의 선교사님들 위하여, 내 가정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은혜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방패 높게 들게 하옵소서

치유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힘든 시기입니다. 따뜻한 은혜회, 내가 먼저 웃는 은혜회 되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를 받고 위로를 주는 따뜻한 은혜회로 이끌어 주옵소서

비전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은혜회 모든 가정이 〈우리집 비전선언문〉을 향유하여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목적 항구가 없으면 아무리 순항이라도 표류하는 것이라 합니다.
우리 은혜회 모든 권사님들 〈우리집 비전 선언문〉을 자녀·손에게 선포하며 각 가정의 믿음의 대장 되게 하옵소서. 지구촌

서로 사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은혜회



신명희 권사
수지 은혜회장

할렐루야!
2024년 새해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막중한 은혜회 회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여러모로 부족하오나
주님께서 일하고 섬기라고 주신 직분임을 바로 깨달아 감사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해 은혜회는 많이 침체되어 있어 더 부담이 되지만 모든 일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또 새롭게 시작하는 느헤미아 프로젝트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기도하는 은혜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지구촌교회의 모든 사역자 분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감사가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함께 동행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홀로 받으소서!

수지 은혜회 사역

1. 기도하며 섬기는 사역으로는 교회와 느헤미야 프로젝트 건축과 원로목사님과 담임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사역자분들과 선교사님들, 아프고 힘든 성도를 위해 중보기도에 힘쓰겠습니다.
2. 회원들 간의 친교는 하나님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 주고 화평케 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은혜회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3. 군선교 사역는 군선교사역에 직·간접적으로 섬기며 영적으로 중보기도와 필요를 채우는 사역되길 소망합니다. 지구촌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지구촌교회를 바라보며



조정현B 장로
안수집사장로회장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 — 사도행전 4:32a

대망의 갑진년 2024년을 맞이하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새해에도 주님과 함께 강건하시고 건승하시길 성원드립니다.

우리 지구촌교회는 2024년이 보다 뜻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회 출범 30주년을 맞이하고 최성은 담임목사님이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추진하시는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원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 교회에게 많은 기적과 사역을 허락하셨지만 다시 한번 새로운 미래 비전을 향하여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해에는 온 성도들이 하나되어 지구촌교회 30주년을 기념하면서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마침내 빛나는 지구촌교회의 부흥을 이끌어 내는 주님의 새로운 〈사명〉에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기적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제 느헤미야 프로젝트의 성공과 빛나는 지구촌교회의 부흥도 지구촌 성도들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한마음과 한뜻으로 하나된다면 마침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난 30년간 우리 교회와 함께하신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새해에는 지구촌교회가 기도와 찬양과 예배 가운데 성도들이 더욱 하나되기를 기대하며 나아가 하나님과 하나되는 교회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구촌

희망의 새해에는



함정숙 권사
분당1권사회장

할렐루야!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함께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중책을 맡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의지하며 성령께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만큼 마음 다하여 섬길 것을 다짐하면서 새해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제1권사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제1권사회! Happy new year!

분당 권사회 사역

1. 기쁨의 봉사

주의 만찬 / 이웃 돕기 떡 판매 / 사랑의 김장 축제

2. 사랑의 후원

미자립 교회 지원 / 개척 교회 지원 / 다문화 가정 지원 / 교육 목장 및 신학생 장학금 후원 / 군선교 및 해외 선교사 후원

3. 아름다운 교제

회원 간의 친목(월례회, 연합 축제, 야유회, 영화 감상) / 권사회 회원 경조사 참여 및 병문안 심방

4. 대외 행사 참여

전국여성선교연합회 세미나 및 기도회 참여 / 불우이웃 및 새터민 돕기

지구촌

신실한 청지기로의 부르심



김금렬 권사
수지1권사회장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2024년 새해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3년 월례회에서 추천을 받고 많은 권사님의 지지가 있어 회장직을 수락하였지만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저 자신을 잘 알기에 과연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찬양을 생각나게 하셨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여 나아갈 때 놀라우신 계획으로 이끄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계획 나는 믿으며 살리"**

아직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끄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 합니다.

수지 1권사회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서로 화합하며 중보자로,
교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권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청지기로 그 책무를 다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더욱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평안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구촌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유미란B 권사
분당2권사회장

"주님, 주님께서 계시는 집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 새번역 시편 26:8

2024년 분당2권사회에서 주제 말씀으로 삼은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권사 회장'이라는 자리가 부담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서울로 거처가 옮겨졌기에 이동거리도 부담이 되었고, 개인적으로 건강의 문제도 있어서 권사 회장이라는 자리가 감당하기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권사님들과 함께하는 권사회의 귀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기꺼이 감당하고자 합니다.

권사모임 시간들을 통해 선배 권사님들의 사랑과 섬김을 경험했습니다. 사랑과 섬김의 모본이 되어 주셨던 선배 권사님들을 기억하며, 저 또한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오고 가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 교회의 어머니된 자리를 지키셨던 모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임이 주님 안의 사랑과 위로로 가득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함을 통해 함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작은 소자에게 섬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지구촌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맺기를 기대하며



장은자권사
수지2권사회장

2024년 주의 몸된 교회와 복음의 일꾼인 권사님들을 주의 사랑 안에서 섬기게 하신 아버지의 전적인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미련한 자이지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 말씀에 힘을 얻어 순종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었고 저와 수지 2권사회를 통해 영광받으실 주님을 소망 중에 기대하며 첫 시작의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 고린도후서 9:8

하신 말씀을 은혜로 받을 때 말씀이 성취되는 감격과 기쁨이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와 공동체 가운데 아름답고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믿음으로 바라며 수지 2권사회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1. 모이기에 힘쓰며 위로와 격려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사랑의 공동체"
2. 교회의 덕을 세우고 믿음의 본이 되어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며 선행에 부지런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
3.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전도와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전도와 선교의 공동체"

를 이루어 가기 위해 우리는 모두 한마음으로 연합하여 아버지께서 수지 2권사회와 지구촌 교회에 부여하신 시대적 사명과 비전을 함께 꿈꾸며, 주의 나라를 함께 세워 가는 충성된 직분자로서 동역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수지 2권사회는 이 일을 위해 모든 성도님들께서 기도의 손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리며 2024년 샬롬의 축복을 전합니다. 지구촌

감사와 기쁨을 배웠던 시간



명시윤
연합3마을 5학년

저는 9월19~25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로 총 10명의 드림선교단 친구, 언니들과 목자님, 전도사님, 목사님과 함께 선교를 다녀왔어요. 저희의 첫 번째 사역 장소는 블링빙사리에 있는 한 초등학교였어요. 블링빙사리 마을은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원래 살던 도시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진 마을이에요. 초등학교에 가서 저희는 무언극, 특송, 풍선아트 등을 하며 친구들과 교제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 학교 2학년 친구들이 준비한 전통춤도 보았는데 엄청 아름다웠어요. 그 초등학교를 통해 저는 고향에서 쫓겨나 생활이 힘들지만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찬구들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어요.

두 번째로는 꿀룽꿍고아원으로 갔어요. 고아원에서는 무언극, 복음팔찌, 간증 등을 했어요. 이번에는 그 친구들과 같이 저녁식사도 하며 더 깊게 이야기를 해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이들을 보며 부모님께 사랑받고 자라는데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가 아닌 짜증과 불평의 말로 나의 입을 채우는 저를 반성하게 되어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마지막으로 24일 주일에는 우붓교회로 갔어요. 먼저 어른들도 함께 있는 예배에서 무언극, 간증, 특송을 한 후 주일학교에서 친구들과 풍선아트, 특송을 했어요. 이번에도 저는 인원도 많지 않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을 보며 회개하고 다시 돌아보게 되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이번 선교를 통해 무엇보다 감사와 기쁨을 배웠던 것 같아요. 평소에 사소한 것에도 짜증내고 화냈는데 이 친구들은 그 사소한 것들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덩달아 즐거운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함께 선교를 한 우리 드림선교단 친구들과 언니들, 선교사님, 목자님, 전도사님, 목사님 사랑해요! 지구촌

천사를 만나고 왔습니다



장서율
연합3마을 5학년

제가 인도네시아 발리 단기 선교에 참여한 이유는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 너무 기쁘고 의미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을 꼭 전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발리에 오기 전 제 마음은 안전하게 일정을 마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신나고 설레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발리에 오기 전 제 상황은 회장수련회, 회의, 에버랜드를 못 가는 상황이었고 발리에서 돌아와서 이틀 뒤 댄스 발표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상하고 아쉽고 체력이 부족할까 걱정되었지만 선교를 가는 것은 그 일들의 가치를 뛰어넘는 의미를 지녔다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지니다 보니 좀 위로가 되었습니다. 발리에서 가졌던 감정은 꿀룽꿍고아원에 있던 친구들은 부모님께서 돌아가셨거나 부모님과 떨어져 있는 상황에도 해맑게 웃으며 인사도 해 주는 것을 보며 나는 엄마아빠와 떨어져 있는 게 거의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진짜 고아원친구들이 마치 천사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언니가 선물을 준 것도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또 그곳 화장실 환경이 열악한 것을 보며 '나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는데 왜 불평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며







마음이 좀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발리에서 만난 친구들이 외국인이라고 멀리하지 않고 오히려 환하게 반겨 주고 멋진 전통춤까지 보여 줘서 너무 감동적이었고 고마웠습니다. 발리에 있는 친구들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발리에서 무언극을 할 때 예수님이 사망권세를 이기신 것을 보며 아이들이 박수를 칠 때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을 하는 중, 우리에게 독수리 같은 힘을 주시사 우릴 날개로 감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전도사님, 목자님, 목사님과 함께 울며 기도회를 할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변화된 삶을 걷게 해 주시는 하나님도 만났습니다.



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만을 높여 드렸습니다. 앞으로 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만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다짐했고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또 앞으로 친구들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장서율이 되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지구촌

드림선교단 섬김이로 인도네시아 발리를 다녀오며



김정수 목자
연합3마을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드림선교단 섬김이로 동행한 김정수 목자입니다.
영적•육적으로 많이 고된 일정이었지만 하나님이 맘 아파하시는 또 하나의 땅끝 발리에 주님의 복음과 사랑의 위로를 전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올 초 생각지 못했던 교육목자를 맡으며

올해 3월쯤 나침반 목장 모임을 할때 담당 목자님이 저에게 교육 목자를 해볼 생각 없냐고 권하셨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이없어하며, "아이들 관련 전공도 아닌 제가 무슨 교육 목자를…" 하며 단번에 거절했어요. 모임 후 집에와서 기도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으니, 기도해보자 하는 회개가 되어 목자님에게 고민해 보겠다고 연락하고, 돌아오는 주일 연합3마을 2시 예배에 탐방을 갔습니다.
율동하며, 찬양하는 아이들을 보며 너무나 사랑스러웠지만, 제가 같이 율동하며 찬양하기는 너무나 오글거려서 못하겠다 싶어, 도망치듯 동료 교육 목자님들과 마을장님에게 생각해 보겠다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에 와서도 역시 내가 교육목자는 성격에 안 맞다는 인간적인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 그래도 기도는 조금 해 보자 생각했어요. '기도해 봤는데 응답을 주님이 안주십니다'라고 해야 담당 목자님에게도 제 스스로에게도 거절하는 당위성과 핑계가 생길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새벽기도를 나갔는데, 마침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 중 하나이지만,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보릿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누가 내놓은 건지 아냐고 예배 참석자들에게 물으셨어요.
한번도 관심 같지도 않았던 부분인데… 4복음서 중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기술되어 있더군요.

한 어린아이였어요.
'그 위대한 기적의 시작이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의 손끝에서 시작되었구나. 아이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고 깨달았죠. 새벽예배가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저 교육목자 시키실거 아니죠? 저 경험도 없고, 오글거려서 못 합니다"라고 기도하는데 "정수야 네가 너보고 하라는거 아니다, 내가 할 건데 너의 시간과 마음 하나 내어 놓을 수 없겠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제 평생 가장 빠른 기도응답이었습니다. 명확한 응답에 더 이상에 기도가 필요할까요? 그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교육목자 해 보겠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난생 처음 교육 목자를 시작했어요.
목장마다 돌아가며 대표기도를 하는데 아이들이 대표기도를 피하고 두려워해서, 무엇으로 동기유발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주님께서 오래전 대만선교 시 경험했던 풍선아트를 떠올리게 하셨어요, 유튜브를 보며 캐릭터 풍선을 만들어 대표기도하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피카추 캐릭터를 시작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만들어 주었는데 너무나 좋아하는 아이들을 보며, 저 역시 너무나 기뻤습니다.

계획에 없던 드림선교단 해외선교에 참여하며

아이들과 함께 발리로 향하는 환상과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이 풍선아트가 연결고리가 되어, 드림선교단에 합류하여 발리로 선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꼭 같이 가야 한다고 담당 전도사님께 많은 어필을 해 주었고. 저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며 마을장님을 통해 전달하니, 발리 선교를 한 달 남짓 앞두고 계획에 없던 드림선교단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 합류 당시에 아이들의 미흡한 무언극 연습상태, 교제를 위해 준비되어야 할 여러 활동들, 한 번도 풍선아트를 해 보지 않은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막막함, 확정되지 않은 현지 일정 등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과연 선교출발 전 준비가 될 것인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마음으로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잠언 16장 9절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준비시키셨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예배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 선교준비로 매진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허술하게 보이던 무언극이 감동으로 변해 가고, 교제를 위한 활동들이 차분히 준비되고, 아이들의 고사리 같은 손에서 풍선 작품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일을 해 나가심을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 발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아이들의 신실한 기도에 놀라고 매주 휴일 없이 강행군되는 연습에도 지침 없이 참여하는 아이들을 보며 많은 도전과 감동을 얻었습니다.

저 또한 단순 교제의 수단으로만 계획했던 풍선아트에 말씀이 실리고 스토리가 덧입혀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어, 복음의 시나리오가 완성되어, 풍선아트를 통해 교제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도 전달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준비과정부터 동행하셨던 하나님. 파송예배와 함께 선교지로 출발하면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정신없이 일정들이 흘러갔습니다. 역시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내드릴 뿐… 깨달음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쫓겨난 사람들이 세운 블림빙사리교회, 힌두교 집안의 아이들과 고아들이 다니는 블림빙사리 초등학교, 힌두교 부모들이 아이를 맡겨 놓은 꿀릉꿍고아원, 우붓교회 일정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첫 사역지에서 긴장하던 저희 일행은 어느덧 인간적인 두려움과 긴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몸을 싣고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사역지마다 너무나 반가워하며 우리 드림 선교단을 맞아 주던 현지 아이들.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세상 어느 곳의 아이들도 모두 이렇게 사랑스럽구나.' 이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사역을 마치고 이동하는 버스에서 멈출 줄 모르는 아이들의 찬양의 노래들 모든 순간이 주님이 함께하시는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사역에 임하는 아이들을 볼 때 어찌나 대견하고 감동이고 기쁘던지 이런 아이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특히 고아원을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저녁에 기도회를 하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한참 동안 눈물 바다였던 우리 드림선교단 아이들. 돌아오는 공항에서 선교사님과 헤어지며 울음바다였던 아이들을 보며, 선교를 통해 우리 아이들을 한층 더 성장시키시고 주님 닮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목격하였습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 선교준비하며 기도하던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현장에서 성취됨을 보여 주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들이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선교사님에게 위로가 되고 싶다는 기도제목이었는데, 선교사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이 걸어오신 지금까지 사역에 천사 같은 아이들을 보내 주시어 위로하시는 것 같다는 고백으로 기도 응답되는 때에는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선교지 이곳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동행하심을 가장 최전방에서 체험하는 곳이구나 하고 새삼스레 느끼며, 아직 너무나 어린 나이에 이런 경험을 하며, 쓰임받은 우리 드림 선교단 아이들을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며, 어떻게 사용하실까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벅차고 기대가 됩니다.

우리 드림선교단 아이들이 (요한복음 6:9) 오병이어의 기적을 위해 보리떡과 물고기를 내어놓은 아이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아이들이구나 생각하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울림의 에피소드를 나누며 마무리하면

마지막으로 작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던 에피소드를 나누고 마무리하고 싶어요

고아원 사역 후 돌아올 때, 한 아이가 달려와서 제 손에 이 조잡한 장난감을 쥐어 주고 가더군요! 뭐 이런 걸 주고 가지??? 어떤 맘인지 당황했는데 그 아이도 찾아와 준 우리가 너무 고마워서 무언가 나누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이해되니 너무나 예쁘고 감사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선교, 어떤 헌신도 하나님께는 이런 조잡한 장난감에 불과할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큰일이라도 전능하신 만물의 주관자되시는 하나님께는 수많은 역사하심의 작고 작은 조각일 테니까요.

하지만 작던 크던 결과보다, 참여하며 내어드린 우리 마음을 너무나 기쁘게 받아 주시고, 사랑하는 시선으로 자녀된 우리를 바라봐 주시며 "그래 너의 마음이 너무나 귀하고 예쁘구나"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느낍니다. 더불어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나누어 줄 수 있는 세상 무엇과 견줄 수 없이 귀한 복음이란 선물이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께서 드림선교단 각 지체들에게 말씀하시는 듯해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23).

연약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올려드립니다. 또한 함께해 주신 드림이들, 목사님, 전도사님, 어머님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촌

미취학지구를 소개합니다!



박소현 팀장
미취학지구 수지채플

저는 수지채플 미취학지구를 22년간 섬겨 온 박소현 팀장입니다.
제가 미취학지구의 예배를 섬기며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셨던 저의 주일학교 시절 추억 때문이었습니다.
어릴 적 주일학교 선생님(교육 목자)들께 배웠던 말씀과 찬양, 기도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했던 교회 수련회의 기억들은 지금도 제 신앙의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저의 주일학교 시절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격, 변화들은 지금도 미취학지구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생각나게 하시며 갑절의 은혜로 부어 주십니다.

미취학 지구 예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세~36개월 영아촌 예배

아가들이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영아촌예배는 부모님도 예배로 세워지고 아가도 주님을 만나고 배워 가는 믿음의 첫걸음을 떼는 귀한 예배입니다.

4세~5세 유아촌 예배

유아촌 예배는 처음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부모님께서는 본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유아촌 마을장과 목자들이 엄마, 아빠를 대신하는 수고가 해같이 빛나는 곳입니다. (함께 주를 위해 손을 보탤 목자님이 많이 필요합니다.)

6세~7세 유치촌 예배

유치촌 예배는 아이들이 참된 예배자의 자세를 배우며 목자님들과 진지한 믿음의 대화도 가능해지는 예배입니다.
대화와 활동이 풍성하여 유치촌예배는 시간이 늘 촉박하게 느껴집니다.



2시, 연합촌 예배

연합촌 예배는 오후에 교회로 오는 미취학 아이들을 위한 예배입니다.
미취학 아이들 모두를 환영하고 함께 예배하는 귀한 전도사님, 마을장, 목자들이 계십니다.

경기대채플 미취학 예배

경기대 채플에도 10시, 12시 미취학 예배가 드려집니다.
전도사님과 마을장, 목자들의 사랑을 더욱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귀한 경기대채플 예배입니다.

영아촌 예배에 오셔서 행복하고 참된 양육의 시간을 누리십시오.
유아촌 예배에 아이들을 보내 주시고 목자로 헌신해 주십시오
유치촌 예배에 내 자녀와 친구들을 데리고 와 주십시오
저와 함께하셨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주실 것이며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교회를 기쁨으로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으로 자랄 것입니다.

이제 곧 시작될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특별히 공사가 시작되면 아이들의 예배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 미취학지구와 모든 교육지구에 기도와 헌신의 손을 보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구촌

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되어요



송유나 목자
분당7지구 에벤에셀1 목장

저는 코로나 기간에 목자로 세워진 3년차 목자입니다. 목장 막내로 들어와 목자님이 하시는 말씀 열심히 순종하면서 지내왔는데 갑작스럽게 목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처음은 어색하고 떨리는 일이겠지만 뭘 하든 그저 "예쁘다" 해 주심 받던 목장막내에서 목자로 세워지니 또 다른 숨막힘이 있었습니다. 전화나 문자를 보낼 때마다 '식사준비하고 계시면 어떡하지?', '일하시느라 못 받으실 것 같은데…', '너무 늦은 시간 아닐까?', 여러 번 고심하다 전화가 혹여 연결이 되지 않으면 '혹시 나를 피하시는 것일까?', '불편한 시간대였나?'라며 혼자 속앓이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코로나 기간, 줌으로 목장모임을 하면서 드라마 대본처럼 대사 한 마디 한 마디 준비하여 부족한 부분을 꽁꽁 숨기기 급급했습니다. 어느덧 코로나 기간이 끝나가고 대면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줌 화면 속에 기대어 대본과 메모장에 의지했던 목장인도에서 대면 모임은 또 다른 시험으로 다가왔습니다. 목장모임 일주일 전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고 전날에는 잠이 안 올 때도 있었습니다. '나의 이런 소심한 성격이 목자로서 적합한 걸까? 다른 목장 목자님들은 적극적이신 것 같고 목장원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고 카톡방도 우리처럼 조용하지 않을 거야' 하며 자책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심하고 조용한 목자를 묵묵히 곁에서 지켜봐 주신 목장식구들이 계셨습니다. 또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 주님이 계셨습니다.

저희 목장에는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뇌수술 하셨던 분, 위암수술하셨던 분, 목장모임 때마다 그동안 얼마나 아팠다 회복되었는지가 주로 화젯거리였으며 응급실에 다녀오신 것도 다반사였습니다. 한쪽 증상이 회복되면 다른 증상이 나타나고 끊임없이 온갖 아픔으로 심지어 작년 암수술까지 받으시면서 같이 중보기도하고 주님께서 고난을 주신 만큼 하늘에 상급이 쌓일 것이라며 같이 응원해 주며 시기를 보냈습니다. 저는 크게 아픈 적이 없었지만 제가 드리는 위로가 진심으로 와 닿길 바랐었습니다. 너무 간절했습니다. 얼마 후 저에게도 두 번의 큰 수술이라는 전혀 상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갑상선 혹이 악성으로 나와서 지난 3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암이 주는 압도감에 놀래기도 했지만 담대하게 잘 넘겼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훈장처럼 느껴지고 다들 걱정해 주시는 응원과 기도에 생일파티 주인공이 된 것처럼 철없이 마냥 좋았습니다. 하지만 연이어 두 번째 암진단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자궁에도 암이 있다니요…….

“뒤돌아보니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았었나… 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기가 막히게 해 주실 것을……”

“주님… 저 어떡해요? 우리 아들 너무 어린데 어떡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친정에도 시댁에도 섣불리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충격에 힘들어하실까 봐 걱정되었고 시댁에는 아픈 며느리라는 죄책감이 들어 쉬이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때 목장식구들이 곁에서 저를 지켜 주었습니다. 누구보다 연약했던 우리 목장식구들이였는데 어느 때보다 든든하고 의지가 되었습니다. 목장식구들이 저의 연이은 고난에 시험 들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어 ‘정신 차리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동아줄이신 주님께 평안을 허락해 주시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초등학생 우리 아이도 주님이 잘 키워 주실 거야. 남편… 아직 믿음이 없는데 혹여나 마지막 순간이 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만나 달라 꼭 이야기해 줘야지’라며 입술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심히 미약하여 주님의 뜻을 알기 어려우나 순종하기를 바라나이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수술을 기다리고, 수술하고 또 검사하고 그 과정 하나하나 목장식구들과 같이 나누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저의 밝은 모습에 너무 무리해서 밝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닌지 “힘들면 힘들다 하라”고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정말 평안하였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되었고 회복도 잘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암이라니요. 아니요, 젊어서 수술 받으니 회복이 정말 빨랐습니다. 한꺼번에 그런 일이 일어나다니. 아니요, 갑상선암 때문에 대학병원에 치료를 하게 되어 자궁암 치료일정도 빨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앞서 발견하게 하시고 치료시키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게 하시고 건강을 돌보게 되니 자연스레 씩씩한 목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난을 같이 넘긴 목장식구들과 찐한 전우애 같은 마음이 생기고 목장식구들 아파할 때마다 암환자로서 당당하게 위로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목장에 안 나오셨던 분이 다 나오시고 배가의 축복이 비처럼 내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정말 단단하게 바뀌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어디 갔나 싶을 정도로 제 마음의 뿌리가 단단히 내린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쓰며 뒤돌아보니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았었나… 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기가 막히게 해 주실 것을… 어찌 그리 걱정했나 모르겠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필요하지 않은 과정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다 하셨어요. 감사해요. 주님!” 지구촌

Christmas Special 그 의 궁 정 에 들 어 가 서

ENTER HIS COURTS





지구촌교회는 복의 근원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한 달에 한 번 금요일 저녁, 특별 찬양집회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금요일(12/15), 그 세 번째 예배가 지구촌교회 분당채플 본당에서 드려졌습니다.

이번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는 Christmas Special Enter His Courts, 크리스마스 특별 찬양집회로 드려졌습니다. 온 세상을 하얗게 만드는 깨끗한 눈처럼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과 죄악을 대속의 은혜로 깨끗하게 덮어 주신 예수님. 우리는 이 찬양예배를 통해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그 능력의 이름을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지식, 아름다움, 물질, 명성, 경험들로 우리 삶을 채우려 하지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으로서만 채워질 수 있는 빈 공간.
우리의 공허함과 허무함은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결핍의 증상입니다.

갈급하고 목마른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만이 우리를 충만하게 합니다. 지구촌

* Enter His Courts (12/15) 예배 다시 드리기 ▶
(핸드폰 카메라를 QR코드에 대시면 예배영상 링크로 연결됩니다.)



엔터집회에서 경험한 우리의 간증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점점 잊혀져 가는 시대 속에 엔터집회는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전처럼 다시 모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얼마나 기대하시고 기뻐하실지 생각하면 뛰는 가슴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엔터집회가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대를 일으키는 도화선이 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살며 엔터집회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되어 찬양을 충만히 올려 드릴수 있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궁정에 들어가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40~50분의 시간이 5분같이 지나 버리는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너무 익숙해서인지…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감을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 삶의 기쁨과 소망 유일한 구원되시는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예배는 성령의 가득한 임재로, 영이 새로워지는 예배였습니다. 왕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예수그리스도의 탄생을 선포하고 기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다시 한번 찬양에 힘이 있음을 상기할 수 있었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Enter His Courts(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우리의 예배는 계속됩니다!

2023 성탄축제 '반짝반짝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12월 22일 금요일 저녁 8시에 '반짝반짝 크리스마스'라는 주제로 수지와 분당 양채플 본당에서 2023년 성탄축제가 진행되었습니다.

담임목사님의 성탄 축하 메시지와 교육목장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과 율동, 극단 지구촌의 재미있고 유익한 공연은 참석한 어린이와 부모님 등 온 세대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린이와 성도들은 교회에서 나누어 준 노란 별에 불을 켜서 함께 흔들며 찬양하는 등 축제의 흥겨움을 만끽했습니다. 지구촌

2023 송구영신 예배 & 2024 신년감사 예배











Good Bye 2023! Happy New year 2024!

12월 31일 저녁 9시, 11시에 수지와 분당 양 채플 본당에서는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송구영신 예배와 주의 만찬이 진행되었습니다.

1월 1일 오전 10시, 낮 12시 오후 2시에는 수지와 분당 양 채플 본당에서 새해 첫날을 맞이하여 한해를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지구촌

2023 청지기 부흥회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 2:18)라는 주제로 12월 4일(월)-5일(화) 양채플 본당에서 2023 청지기 부흥회가 진행되었습니다.

12/4(월)일은 오전과 오후 서울혜성교회 정명호 목사님께서 '믿음은 결단입니다' (행 21:8-14)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고 참석한 청지기들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어 느헤미야 프로젝트 진행 설명 및 설계 안내와 2024년 30주년 기념사업 계획을 영상을 통해 나누고, 담임목사님의 인도로 5가지 기도제목을 놓고 참석자 모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시간을 가졌습니다.





12/5(화)일에는 용인제일교회 임병선 목사님께서 '복음이 능력이 되는 교회' (롬 1:16)라는 제목으로 이웃에게 개방하는 교회 건축과정에 대한 말씀을 전해 청지기들이 도전과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설교에 이어 참석한 청지기들은 담임목사님과 함께 눈물의 기도를 하면서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지구촌의 모든 제직들이 민족치유 세상변화를 이끌어 가는 지구촌 공동체의 주역이 되어 느헤미야 프로젝트와 함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촌

내 평생의 말씀



최종욱 전도사
장년목장센터

샬롬! 새로 시작하는 2024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건 참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때에는 참 어려운 말씀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에는 너무나 그 말씀이 달고 달아 마음속에 쏙 들어올 때가 있음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엔 유혹과 죄악이 너무나 많기에 마음을 지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이 참 어려운 삶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음을 지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집마다 가훈이 있었고, 학교마다 교훈이 있었으며,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심으로 생각하는 좌우명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정하고 살았을까요? 사람은 어떤 목표나 붙잡을 것이 있을 때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기 더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훈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저의 신앙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스스로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하지도 않았고 스스로 교회를 가겠다 마음먹은 적이 없었지만 저는 매주 교회를 가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예배와 교회는 삶 그 자체였습니다. 주일예배는 기본이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구역예배까지 일주일에 적어도 3~4회 예배를 드렸고 집에서는 매주 1회씩 가정예배를 4명의 식구와 함께 드렸습니다. 집에서는 찬양이 자주 흘러나왔고 늘 신앙서적과 성경책을 읽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

정과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자란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숨을 쉬는 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성장 배경이 지금도 여전히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라는 것을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폭풍이 치는 물가에 떨어지는 돌보다는 잔잔한 물가에 떨어지는 작은 돌 하나가 더 크게 물결을 만들어 내듯이 평탄한 저의 신앙생활에 성장하며 세상 속에서 받는 크고 작은 고난들로 저의 믿음을 물결치게 만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게 맞을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게 맞는 걸까?"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그렇게 단단한 줄 알았던 믿음이 결코 단단한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저 따라다녔던 예배와 부모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했던 신앙의 자리들이 분명 신앙에 큰 기틀이 되었지만 결코 깊이 있는 신앙이 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는 가운데도 꾸준하게 이어갔던 예배와 신앙의 자리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땅에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삶에서 생긴 하나님께 대한 질문과 의심에서도 제 안에 있는 말씀들로 그 답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소년의 시절부터 오늘날까지 저의 마음을 울리고 그 말씀을 바라보며 살게 하는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 이사야 53:5

누구나 삶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괴로움을 겪고 삶의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주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개인의 신앙을 내려놓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괴롭고 어려운 인생으로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 분입니다. 이 사실로 하여금 저는 이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자녀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육신의 큰 아픔이 와도 예수님의 피를 통해 주시는 깨끗함을 바라보며 나아갔고, 삶에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었을 때에도 깊은 마음 가운데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도 찬송가 412장(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신앙의 부모님을 통해 신앙의 기틀을 잘 다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푯대를 세우며 살아가다 보니 어느덧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는 하나님의 종이 된 이후에도 또 한 가지 말씀을 붙들고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 갈라디아서 6:17b

이 말씀은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도로 살아가기로 한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흔적이 저의 삶에도 남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당연히 그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부모님의 생김새를 닮았고 부모님의 식성과 습관, 삶의 모습도 일부 닮아 그것이 우리에게 부모님의 자녀라는 흔적으로 남았듯이 예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남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 모릅니다. 이 당연한 일이 제 삶에 꼭 나타나길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구촌의 가족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내 평생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올려 드리며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우리 모두의 영광스러운 삶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촌

JIGUCHON NEWS

2023 성남 크리스마스 문화축제 | 판교역



성탄절 기념 판교역 성탄찬양
12월 24일 주일 오후 5시 30분에 판교역 광장 특설무대에서는 '2023 성남 크리스마스 문화축제'의 일환으로 우리교회가 성탄찬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찬양을 들려주었습니다. 지구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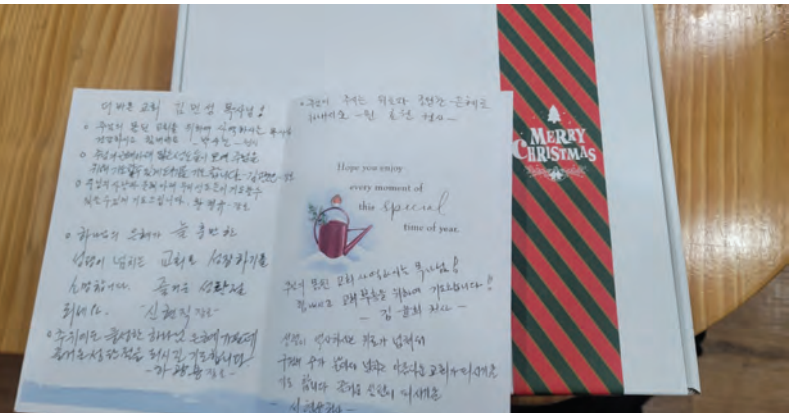
2023 지구촌 협력미자립교회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만나

메리 크리스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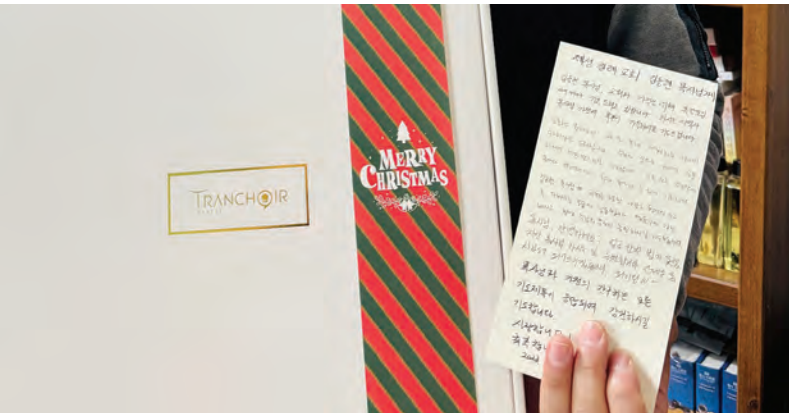
우리 교회는 올해도 성탄절을 맞이하여 협력미자립교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크리스마스 만나] 특별한 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지체들과 즐거운 티타임과 교제를 나누도록 지구촌사회복지재단 지구촌보호작업 "뜨랑슈아"의 선물 세트를 협력미자립교회에 택배로 보내 드렸습니다.

특별히 목장교회에서의 협력미자립교회를 위한 중보기도와 성탄 카드를 통해 목회 현장에서 수고하며 사역하는 목회자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였습니다.









협력미자립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인도를 받고, 영혼 구원과 복음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구촌 목장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의 글

사랑이 뚝뚝 흘러내리는 성탄절 카드를 보내 주신 수지9지구 광교B마을의 목자님과 목장의 모든 가족원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위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 뉴송교회 정종빈 목사 드림

분당 10지구 무지개 마을에서 보내 주신 귀한 선물과 함께 정성스럽게 써 주신 엽서를 받고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은혜와평강교회 이동훈 목사









감사의 글

요즘 받아 보기 힘든 손 편지를 읽으며, 그간 베풀어 주신 사랑과 헌신을 다시 하나하나 떠올리게 됩니다. 힘든 시간 지구촌교회 협력지원교회라는 이름으로 드러나지 않게 저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고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새언약교회 최필승 목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지구촌교회 최성은 담임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장에서 부족한 종과 주마음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시고 사랑의 성탄 선물까지 주시니 눈물과 감동입니다.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마음교회 이재관 목사

이렇게 귀한 사랑의 섬김을 받는 것이 정말 큰 감격입니다.
한분 한분 마음 담아 정성껏 써 주신 크리스마스카드를 읽을 때 한 해 동안 참았던 서러움 같은 것이 북받쳐 올라와 소리 내어 울면서 읽었답니다. 함께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늘샘교회 김애경 목사

지구촌교회 최성은 담임목사님과 수지 4지구 늘푸른 6, 7 목장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도해 주시고 크리스마스 만나 선물로 맛있는 쿠키와 더 맛있는 커피 선물을 주셔서 가족 모두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마므레교회 장이영 목사

시니어지구 1목장의 마을장님과 목자님들의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후원해 주신 헌금과 변함없이 애정으로 기도해 주신 은혜로 우리 교회는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는 교회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 신대중앙교회 김학수 목사



지구촌교회와 최성은 담임목사님 그리고 늘푸른9목장에서 작은 교회를 사랑하며 기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기도의 분량만큼 열심히 사역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 열심을 내고 있는데 목장 식구들의 기도가 많은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맑은샘교회 남기양 목사



보내 주신 사랑에 너무 감동하고 감사가 넘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인 것 싶습니다.
저도 지구촌교회와 모든 교회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 THE바른교회 김민성 목사

성탄절 선물을 받고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지구촌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선물이었습니다.
지구촌교회 최성은 담임목사님과 귀한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대구섬김의교회 서대승 목사 드림

분당8지구 온유 5목장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가정 한명 한명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제주 라이트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정성 들여 손 글씨로 격려와 위로를 보내 주시니 뭐라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역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제주라이트교회 황길상 목사

지구촌



새해! 새로운 시작!



심주원 목사
국내전도부

2024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다사다난한 시간을 보내고 새롭게 시작되는 2024년의 새해를 맞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기대와 설렘의 마음으로 시작하십니까?
혹시 2023년이 지나고 연속적이며 기계적인 일상의 어느 하루같이 2024년 새해를 맞이하고 계신 분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진정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묵은 한 해와의 결별과 함께 새로운 희망과 도전의 시작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새해를 가리켜서 '로쉬 하샤나'라고 부릅니다. 로쉬 하사냐의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로쉬는 '머리', 샤나는 '해'를 뜻합니다. 따라서 '로쉬 하사냐' 는 첫해의 시작인 새해를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히브리어로 '샤나 토바'라고 인사를 하는데, 토브는 좋다는 의미를 담습니다. 따라서 좋은 새해를 보내라는 인사를 서로 간에 나눕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새해가 되면 사과에 꿀을 발라서 먹거나, 석류를 먹기도 합니다.
석류는 '가득한 행복'을 의미함으로 새로운 한 해가 사과에 꿀을 발라 먹음과 같이 아주 달콤하고 행복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나팔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가까우면 동네 아이들은 온통 조잡한 나팔을 불며 삑~삑거리며 다니고 어른들은 통곡의 벽 앞에서 양각 나팔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새해의 시작에 왜 유대인들은 나팔을 불까요?
보통 두 가지 의미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일깨워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라는 경고의 의미가 있으며 다른 하나는 유대 역사 속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날이 바로 나팔절 기간이었기에 이 해방의 날을 새해로 지켰다는 것입니

다. 해방이야말로 새로운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새해를 하루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로쉬 하사냐 하루를 시작으로 10일에는 대속죄일(욤키푸르)을 지킵니다. '욤키푸르'는 회개의 날입니다. 이날에는 지난 한 해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회개하는 날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었던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함을 통해 묵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회개와 반성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바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지키는 '로쉬 하샤나'의 의미를 살펴봄으로 2024년 새해를 의미 있고 보람 있는 한 해를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해를 어떤 마음으로 시작할 것인가 생각할 때 지난 추수감사 특별새벽기도회 때 받았던 은혜를 돌아보고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의미 있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수감사 특별새벽기도회 말씀의 주제가 '기쁨으로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부르심과 소명에 관한 말씀 속에서 많은 눈물과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푯대를 향하여' 찬양의 가사에는 다음과 같은 노랫말이 나옵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신임 목사로 준비하는 저에게 주셨던 주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좇아 달려가는 2024년의 새해를 맞이하며 특별히 이전의 경험과 지식을 모두 내려놓으며 과거의 영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 모험의 삶을 통해 새롭게 주실 하나님에 은혜와 주님의 영광을 좇아 달려가는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여정 속에서 결코, 쉽지 않은 일들이 2024년 올 한 해에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계속되어 이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영적인 고난과 현재의 삶의 고난들이 계속될 수도 있겠고, 눈물과 슬픔의 골짜기로 한 해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도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도 이 한 가지를 기억하고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기쁨으로 푯대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모든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힘든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도전하기를 바라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더불어, 새해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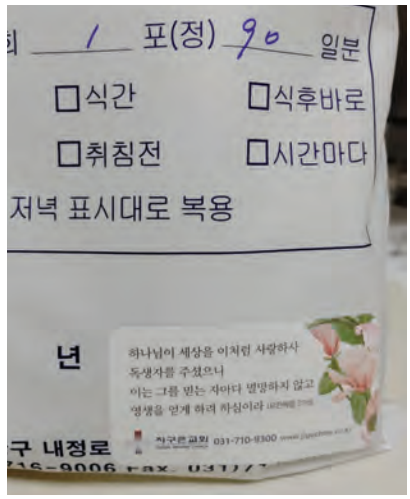
유대인들이 욤키푸르(대속죄일)를 지키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바른 관계로 한 해를 시작하고자 하였던 것처럼, 그리스도인 된 우리도 새해의 일상에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새로운 관계 설정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는 것은 어떨까요?
한 해의 시작을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연결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로 새롭게 세워 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특별히 올해는 지구촌 공동체가 민족치유 세상 변화의 비전을 품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려온 지 3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지구촌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새롭게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자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느헤미야 프로젝트'의 실제적 준비함으로 새롭게 도전하는 한 해를 맞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한 해로, 그리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다음 세대를 길러 내는 귀한 사명 앞에 우리 모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축제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의 모험을 계속해서 펼쳐 나가는 모든 성도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쳐 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샤나 토바! 지구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숙자 집사
분당 주일반 1단계

저는 약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약국에 자주 오셨던 어르신들이나 암 환자들이 갑자기 보이지 않았을 때 "돌아가셨나? 혹시 예수님을 안 믿고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하지?" 하며 그들의 구원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 근처 액세서리 가게에 들렀는데 그 주인이 제게 마스크와 함께 포장된 전도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16)

라는 성경 구절이 있는 전도지였습니다.

아! 나도 약국에 오시는 어르신들께 아니 손님들에게 전도지를 주고 싶다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고 한동안 새벽기도의 시간에 그때 받은 전도지를 들고 "하나님께 저도 전도지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며 기도했습니다.

이후 목장의 목자님과 지금의 그룹장님을 통해 전도폭발훈련을 접하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약국 근무를 하며 외워야 하는 복음 전문으로 인한 부담감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만 중보기도해 주시는 목장원들과 기도 후원자님들 그리고 전도폭발훈련 강의는 저에게 힘든 시간을 은혜로 보낼 힘을 주었고 무엇보다 조로 구성된 훈련자님과 준훈련자님의 친절한 이끄심으로 자신감과 더불어 작은 기쁨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배움의 시간은 저의 구원을 정리해 주었고 암기한 복음 전문은 그 말씀들이 내 심령에 새겨져 새벽기도 중 생각이 나면서 기도의 힘을 더 실어 주었습니다.

약국에 자주 오셨던 어르신 중 몇몇 분들에게 관계전도로 다가갔을 때 자신감은 없었지만, 복음을 전할 때는 그들의 영혼에 대한 사랑이 커지면서 잃어버린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다시 회복되기도 했습니다.



처음 복음을 전해 드렸던 할머니를 블레싱에 초대했고 지금껏 주일예배에 모시고 오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던 중 대상포진 후유증과 아들 결혼이 깨지면서 힘들어하고 있던 큰언니 가정이 특별히 생각이 났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교회를 조금 다녔었고 5년 전부터는 성당에 다녔으나 성당도 이상하다며 현재는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있었던 터라 언니는 가난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 전도 팀의 방문을 너무 기뻐하며 반겼습니다.

복음을 듣던 언니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며 결단의 기도를 드리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갔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 기쁜 소식을 들어야 하는데 하며 안타까워하던 언니는 아랫집 할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분도 신장기능이 약하고 여러 관계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던 차에 복음을 듣고 함께 결신하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시며 언니와 함께 집 가까운 교회를 나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언니는 아들에게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 달라는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는데, 얼마 전 그 아들이 배우자를 찾겠다고 본인이 직접 성경책을 사 가지고 교회에 참석하겠다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입술의 고백을 책임지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담아 보내시며 그 사랑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예전에 그리 많이 다녔던 약국 근처 아파트 거리 어르신들의 영혼이 현장 전도를 통해 보이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땐 울컥하는 마음에 무관심을 회개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기도드렸던 전도지는 제 심령에 새겨진 전도폭발 복음 전문이었음을 알게 하셨고 나이 많은 어르신들께, 손님들께 드리고 싶었던 전도지는 훈련자님을 통해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요한복음 3:16절 말씀 스티커를 조제 봉투에 붙여서 드리는 응답도 주셨습니다.
전도폭발훈련 과정을 통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셨고 그리도 외우기 힘들어 어려워했던 복음 전문은 나의 구원의 확신을 재정리해 주었으며. 이제 환갑이 넘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는 기쁨도 얻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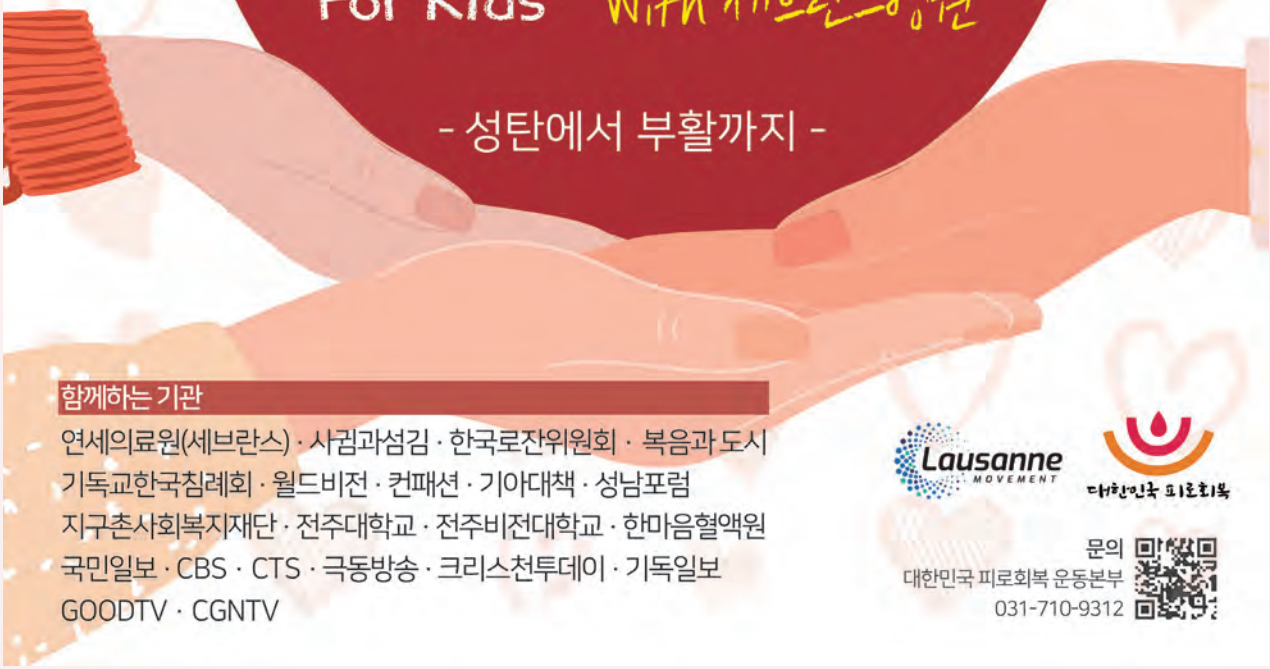
전도는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전도를 통해 확장되어 갑니다. 교회는 전도된 한 영혼 한 영혼이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세워지는 공동체임을 알기에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저 또한,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주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새로 시작된 느헤미야 프로젝트는 또다시 우리 아니 저의 마음을 뛰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전 성전건축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미약하지만, 새벽마다 매일매일 드리는 가슴 뜨거운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위한 기도와 적은 헌물의 봉헌은 또 다른 주님의 사랑을 경험케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져 갈 때 우리 모두의 마음의 성전도 잘 세워지길 소망하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지구촌

여러분의 헌혈과 관심을 통해
수혈이 필요한 어린이 환우에게 사랑이 전해집니다

대한민국 피로회복

For Kids+ With 세브란스병원

- 성탄에서 부활까지 -



함께하는 기관

연세의료원(세브란스) · 사귐과섬김 · 한국로잔위원회 · 복음과 도시
기독교한국침례회 · 월드비전 · 컨패션 · 기아대책 · 성남포럼
지구촌사회복지재단 · 전주대학교 · 전주비전대학교 · 한마음혈액원
국민일보 · CBS · CTS · 극동방송 · 크리스천투데이 · 기독일보
GOODTV · CGNTV

Lausanne MOVEMENT

대한민국 피로회복

문의
대한민국 피로회복 운동본부
031-710-9312

대한민국 피로회복 FOR KIDS+



"진정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되는 대한민국 피로회복"

대한민국 피로회복 캠페인은 코로나로 인해 헌혈 수급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을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 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성탄에서 부활까지'라는 부제를 갖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참여하는 헌혈 사랑 운동이다. 올해도 성탄절부터 대한민국 피로회복 FOR KIDS+(이하 대한민국 피로회복)라는 타이틀로 진행한다.

2023년 12월 12일 오후3시 "대한민국 피로회복 FOR KIDS+ 시즌4 발대식"이 신촌 세브란스 본원 종합관 의료원장실에서 열렸다. 대한민국 피로회복 캠페인은 2020년부터 성탄부터 부활까지 매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벌써 4번째 시즌을 맞이하였다.



▲ 2023년 12월 12일 신촌 세브란스 본원 종합관에서 "대한민국 피로회복 For Kids + 시즌4"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사진제공; 대한민국 피로회복운동본부)

지구촌교회 최성은 담임목사를 비롯해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 기독교한국침례회 이종성 총회장, 성락성결교회 지형은 목사, 더사랑의교회 이인호 목사, 대구동신교회 문대원 목사, 한마음혈액원 황유성 원장, 연세의료원 윤동섭 원장, 신촌세브란스 하종원 병원장, 용인세브란스 김은경 병원장 등 기독교계와 연세의료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구촌교회 최성은 목사는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교회가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동안 저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고 교회됨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다 이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돈 이상의 값어치를 주는 것이 헌혈이다. 환우들이 누군가 우릴 위해 기도해 준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위로와 사랑이 될 것이다"라고 전하며 "제 4차 로잔대회를 준비하는 한국교회가 복음의 우선성과 더불어 복음이 가진 사회적 관심으로 입술로 전한 사랑을 행동으로 보이며 진정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펼쳐나가자."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피로회복 For Kids + 시즌4" 발대식에 참석하여 참여 소감을 말하는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 (사진제공; 대한민국 피로회복운동본부)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는 "참여하는 성도들이 더 보람 있는 캠페인이다.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참여 소감을 말하였으며, 한마음 혈액원 황유성 원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뜻이 모이고 조직이 확대되는 것을 보며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성도들의 기도가 모여 생명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하며 "특히 지난번에 이어 이번 시즌도 연세의료원과 함께하는데 연세대는 우리나라 헌혈 운동의 시초가 된 곳 중 하나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성락성결교회 지형은 목사는 "얼마 전 인도네시아에 미카엘이라는 7살 어린이의 수술을 우리 교회 글로벌사랑나눔과 연세의료원이 함께 지원한 일이 있다"며 "교회 설립 60주년을 앞두고 성도들과 함께 헌혈 운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더사랑의교회 이인호 목사는 "사단법인 복음과도시 소속의 목회자들과 더욱 열심히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동신교회 문대원 목사는 "복음주의권 선교대회인 제4차 로잔대회를 앞두고 한국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총체적 복음을 강조하는데 이는 로잔 정신에 부합하는 일이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도전을 줄 수는 캠페인이라고 생각한다.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참여하겠다"라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할 뜻을 전했다.

윤동섭 연세의료원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연세의료원이 목사님들과 은혜로운 행사를 함께 한다는 게 큰 기쁨이고 자랑이다."라며 "의료원장으로서 보람을 느낀다. 환우와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 캠페인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하종원 세브란스병원장은 "우리 병원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한국교회가 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 세브란스병원도 캠페인을 혼신의 힘을 다해 동참하겠다. 지금까지의 감동이 앞으로도 지속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대한민국 피로회복 For Kids + 시즌4" 발대식에서 세브란스병원에 헌혈증 1,500장을 기증하였다. (사진 제공; 대한민국 피로회복운동본부)

대한민국 피로회복 캠페인은 사귐과 섬김 15개 교회(남서울, 동안, 만나, 새중앙, 선한목자, 성락성결, 소망, 수영로, 신촌성결, 온누리, 일산성광, 주안장로, 지구촌, 충현, 할렐루야)가 2020년 코로나 19로 인한 혈액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헌혈 캠페인이다. 지금까지 3만 5천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였고 2억3천만 원의 치료비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과 연세의료원에 전달하였고, 이날 발대식에서는 세브란스병원에 헌혈증 1,500장을 기증하였다. 올해는 헌혈 참여자 2만 명과 소아환우 치료비 2억 원 모금을 목표로 캠페인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지구촌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을 맞이하며



박종수 장로
분당 8지구, 영어 어린이부 교육 목자

새로운 도약의 2024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2023년은 개인적으로 특별하였습니다.

첫 번째, 둘째 아들이 고등부 교육 목자인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축복된 가정을 이룬 것입니다. 3남 1녀 자녀 중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사랑스러운 며느리까지 맞이하는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34년 전 청년부 공동체에서 결혼식을 올렸던 감격의 그 순간이 떠오르는 특별한 체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40대에 1단계 훈련생으로 입문을 한 국제전도폭발 훈련과정(5단계)을 모두 마치고 2023년도 3단계, 12명 훈련자 교사를 미지막으로 내려놓게 되어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지난날을 돌이켜 보니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실, 전도훈련을 받기 전에는 전도 대상자를 어떻게 만나 복음을 전해야 할지 엄두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주변에 복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훈련 을 통해 다양한 전도 대상자들을 만날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내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안에 있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세 번째, 2022년을 전후로 급격히 늘어났던 체중과 빈번한 편두통, 팔다리 마비 증상,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안구 건조증과 틱 증상, 통풍, 식도 역류 질환과 갑산성 기능 항진증, 그리고 치료제 과량으로 인한 갑상선기능저하증, 허리, 어깨 통증과 염증 등 다양한 질병으로 악화되었던 상태가 2023년도에는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

지인의 도움으로 건강기능 보조 식품을 복용하며 식단 조절과 유산소 운동을 통해 효과적인 체중 조절은 물론 약물 치료에 의존하지 않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상태로 '피로회복 캠페인'까지 동참 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세포가 회복되고 내 몸 스스로 자가 치료 기능이 활성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선물과도 같은 기쁨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2023년 12월에 의료인 간호사로서 정년퇴임을 하였습니다. 함께 사무실 짐을 정리하고 나르며 만감이 교차되었고, 어려운 시련속에 한때 간호부 중책과 교수 직분까지 내려놓는 난관을 믿음의 기도로 극복했던 엄마, 며느리, 신앙인으로서 멀티 역할을 감당했던 아내의 신실함에 존경과 감사 그리고 위로를 보냅니다.

다섯 번째로 젊은 시절 직장을 옮기면서 정리하게 되었고 영어교육 사업과 순차 통역사, 무역 자영업으로 전환 하였으나 경제적으로 위기에 봉착했던 시기를 맞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이테크 반도체 프로젝트 계약직 (안전관리 책임자)을 겸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활도 2023년 7월에 모두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2022년 만60세에 새롭게 리셋되어 인생의 후반전에 직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품고 있었던 비즈니스를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2023년 12월 초부터는 ' 해외 직구 웹 쇼핑몰 사업' 웹 쇼핑몰 스테이션을 구축하면서 골든 에이지의 삶을 펼치는 새로운 삶으로의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변화와 도약이 시작되었던 2023년, 선물로 주어진 2024년은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욱 건강한 마음가운데 새 힘을 얻게되어 기쁩니다. 이제 주어진 순례자의 삶 속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며 천성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것은 마치 독수리가 날개 치며 하늘로 비상하듯 생명력의 역동감을 느낄 수 있는 순간입니다.

이제 내게 주어진 인생의 하프타임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푯대를 향해 달려가며 소망의 날을 맞이합니다. 샬롬! 지구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마을 연합 VIP 축제

분당11지구 헤세드마을 이은영 목자

2011년경부터 제 VIP였던 한00 씨는 딸친구 엄마이면서 저와 동갑이어서 친한 친구 사이로 지내오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까지 성당을 다닌 후 신앙생활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가 클래식 전도 훈련을 받고 있을 당시 복음을 두 차례 듣고 영접했던 자매입니다.

작년에 제가 2학기 주일반 저스트잇 전도훈련을 받고 있을 무렵 이 친구에게 공원에서 저스트잇 전문을 요약한 복음을 전하며 영접하기를 요청했으나 거부했습니다.

전에 영접을 했는데 왜 지금은 거부하냐고 물었더니, "요새 건강, 재정, 자녀 문제로 마음이 복잡하고 부정적인 상태에서 받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동 성범죄자나 살인한 사람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안 믿고 싶다"고도 말했습니다. 친구의 이 말을 듣고 저는 맘속에 기회가 되면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해 말해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축소되었던 마을 블레싱을 각 목장별로 다양하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시고 올 수 있는 VIP였습니다. 누구를 모시고 와야 하나 생각하던 중 늘 알바하고 일을 해서 수년 전부터 블레싱 행사에 참여하지 못했던 한00 씨가 건강상 문제로 휴직 상태여서 마을 블레싱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더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번 마을 블레싱에 저희 목장에서는 노방전도 스킷드라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노방전도 스킷드라마는 길거리에서 만난 세 사람 중 두 사람은 복음 듣는 것을 거절하고 한 사람은 요약복음을 다 듣고 영접하는 내용을 드라마 식으로 공연하는 것입니다.

10/26 당일 VIP 9명이 참석했습니다 스킷드라마 마지막 부분에 이날 오신 VIP들을 위하여 구원초청을 하라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셨고 영접기도를 할 때는 VIP 9명 모두 따라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ViIP로 참석했던 제 친구가 늘 숙제로 남아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영접기도 따라하면 좋겠다는 기도를 했는데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친구를 포함 9명의 VIP와 참석한 목자님 목원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물이 한 가지만 있으면 '반찬 하나'지만 여러 가지 나물과 고추장 참기름과 어우러졌을 때 '비빔밥'이라는 하나의 메뉴가 되듯이 마을 연합 블레싱이 '연합과 동역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마을연합 VIP축제였습니다 지구촌.

블레싱 VIP 동연 엄마! 기도하고 있어요

분당 10지구 이성연C

동연 엄마는 10년 전쯤 제 아이의 어린이집 학부형으로 만나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나이도 39살로 저보다 열 살 이상 어린 엄마지만 마음이 순수하고 선한 사람인데 혹시 한국살이가 외롭거나 힘들지 않을까 싶어 마음이 좀 더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 아이랑 초대해 놀리기도 하고 동연이네 집에도 한번 가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친해지게 됐는데 저희가 남편 회사일로 해외살이를 두 번 나갔다 오면서 가끔 안부만 묻다가 한국에 들어오면 또 반갑게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전도하고픈 마음이 생겨 수요예배를 권해 보니 흔쾌히 나왔는데 설교말씀이 조금은 어렵다고 해서 블레싱에 초대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노래듣기를 좋아한다며 아주 좋아했고 가수 초청 날에는 꼭 초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블레싱에 초대하고 있는데 아직 예배에 못 오는 것이 안타까워 목장교회 이야기를 많이 해 주고 언제든 부담없이 나와 보라고 이야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국인 남편분이 아내와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어서 본인은 종교가 없지만 동연 엄마에게는 교회에 다녀도 좋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방에 계신 홀 시아버지께서 교회를 안 좋아하셔서 아버님 말씀에 거역하기를 꺼려하는 마음도 있는 듯합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남편도 사람 많은 곳에 나가는 걸 조심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연 엄마에게 목장교회는 언제나 열려 있고 편안하게 함께할 수 있으며 예배도 그렇다고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외에도 다른 분들도 이 자매를 놓고 기도하며 전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연 엄마와 그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분명 선하게 인도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성향이 독립적이고 주변 베트남 사람들과도 교류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자매이지만 계속적으로 전도하고 격려하며 언젠가 함께 예배와 찬양으로 함께할 그날을 기대합니다. 지구촌

블레싱 축제를 통해 VIP 친구를 만나 주신 주님

청년1지구 노아촌 정수민

블레싱 축제에서 VIP친구를 지구촌교회로 이끌어 주신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이번에 블레싱에 초청한 VIP입니다. 친구와는 회사에서 만났습니다. 알아 온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마음과 성향이 너무 잘 맞아 10년 이상 본 오랜 친구처럼 친한 친구입니다. 정말 많이 사랑하는 친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꼭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 주고 싶었습니다. 이번 블레싱 축제를 통해 친구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전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처음 친구에게 연락해서 교회 가자고 했을 때 친구는 '네가 가자고 하면 같이 가 줄게'라고 화답하며 초대에 응해 주었습니다.

저의 친구는 중학교 달란트 축제 이후 교회에 처음 방문했던 친구입니다. 친구를 교회에 처음으로 데려오는데 혹여나 친구의 마음에 거부감이 생길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데려오기 전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제목을 목장에서 나누었기에 중보기도를 통해 친구를 데려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는 비가 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일정을 마친 후 먼 곳에서 블레싱 축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걱정과는 다르게 친구가 찬양할 때 박수치고 말씀 들을 때 졸지 않고 듣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배시간 가운데 친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성령님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지켜 주셨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 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하면 된다, 그 다음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몸소 옆에서 경험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도 친구와 맛있는 식사와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번 블레싱을 통해서 사랑하는 친구를 데려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서 많은 은혜와 감사함을 느꼈던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친구가 아직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친구를 만나 주실 거란 기대를 해 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 드리며 블레싱이라는 귀한 시간을 만들어 주신 지구촌교회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구촌

햇살 가득했던 축복의 날

청년1지구 스데반촌 김연중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 가을이 되었을 무렵 청년부는 블레싱을 준비하며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블레싱이 불편하였고 VIP를 위한 기도제목을 적어서 내라는 목자의 말에 "나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기도 하기도 힘든데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스데반촌에서 노방전도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던 주일 아침 전도물품을 장바구니에 가득 담고 하천 산책길로 나갔습니다.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였지만 그들은 나를 스쳐 지나갈 뿐이였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 한 자매님께 "안녕하세요 지구촌교회 청년부에서 나왔는데요" 나의 인사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어, 나 지구촌교회 다닐려고 했었는데……." 그 자매님은 지구촌교회에 나오고 싶으셨지만 손 내밀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차일피일 교회에 오는 것을 미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만 끝나면 교회에 가야지… 이것만 해결하고 교회에 가야지…….'
그 영혼에게 손을 내밀어 주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일은 믿음좋은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해야 할 사명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흔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누가복음 15:7).

어딘가에서 복음이 전해지길 기다리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해 나아가라고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지금도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때에 그 주일날 보았던 찬란한 햇살이 주님의 영광이 되어 반짝반짝 빛날 것입니다. 지구촌

고난이 축복이다?

분당4지구 푸른13목장 김주연T 집사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18).

30년생(93세) 고령이지만 석촌호수 한 바퀴를 마치 청년처럼 걸으시던 건강하셨던 아빠가 올해 1월에 위암 2.5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선생님은 수술을 강력하게 권유했지만 아빠께서는 사실 만큼 사셨다면서 수술과 항암치료를 모두 안 받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남편이 옆에 있던 저한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어" 말하면서 아빠께 주일마다 지구촌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떠실지 권유했고 아빠는 흔쾌히 교회에 나오기로 하셨습니다.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말씀이 실감 나던 순간이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겸손케 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교회출석은 기대와 달리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처음 교회에 오신 날에는 장염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귀가하셨고, 그 다음 주에는 감기로, 배탈로 또 제가 섬기는 유년촌 행사 등으로 아빠가 교회에 오시는 게 흐지부지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블레싱을 앞두고 황달로 갑자기 응급실에 가신 엄마가 담도암 판정을 받게 되셨습니다. 엄마까지 이렇게 되자 마음이 바빠졌고 더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께 권유해서 다시 예배에 초청하게 되었고 10월 첫째 주일에 아빠와 함께하는 감격스러운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예배를 마친 후 마음이 평안하고 너무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VIP영접실에서 천국에 갈려면 누구를 통해야 하는지 물으시는 목사님의 물음에 또렷하게 "예수님"이라고 답하시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눈물을 흘리시던 아빠! 우리들의 작은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블레싱축제때 목자님께서 목장교회 VIP 이벤트로 저희 아빠를 초대하고 싶다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주일 예배 참석만으로는 성도들의 삶과 함께하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너무 연세가 많으셔서 시니어부 참석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VIP 이벤트는 아빠에게 좋은 시간

이 될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빠를 목장이벤트에 초대했을 때 좋아하시는 반응을 보면서 아빠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이미 만지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벤트 장소는 벚꽃이 필 때 목장식구들과 함께했었던 잠실 석촌호수로 정했습니다. 벚꽃이 만개했던 그때 아빠의 영혼구원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여름을 지나 가을 단풍 가득한 석촌호수에서 VIP로 모시고 함께 할 수 있게 됨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VIP 이벤트 날! 하나님께서는 봄날 같은 따스한 날씨를 허락하셨습니다. 목장식구들과 함께 석촌호수를 걸으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사진에 담고, 다양한 포즈를 취하면서 서로 사진을 찍어 주고, 이런저런 대화를 통해 지나온 시간을 추억하며 앞으로 마주할 시간을 함께 그려 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93세라는 연세에도 불구하고 열린 마음으로 스스럼없이 말씀을 나누고 목장원들 사진을 찍어 주시며 섬겨 주시는 아빠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목장원 모두 아빠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됨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셨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목장식구들의 중보기도는 평생을 두고 갚아야할 사랑의 빚인 것 같습니다.

목장교회 VIP이벤트를 통해 지난 주일까지 8주 동안 매주일 양복을 곱게 차려 입으시고 12시 예배를 드리시는 아빠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빠가 지금은 작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목장교회를 포함한 많은 지체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나게 하실 것이고 천국의 소망으로 굳게 세워지실 것이란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직까지는 독실한 불교신자이신 엄마 몰래 교회에 나오고 계시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땅에서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 평강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과 동행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빠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사랑하는 엄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어 생사에 따라 단절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서 연결되어 천국에서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할 그날을 소망하며 귀한 이벤트의 주인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구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깨달으며

청년1지구 엘리야촌 포도쨈목장 조성근

이번 블레싱을 통해 저는 가족과 친구들을 교회로 초청하고자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초청 리스트를 두고 기도할 때는 가족들은 오지 않고 친구들만 올 거라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싱 날짜가 다가올수록 친구들은 시간이 안 된다며 모두 거절을 했습니다. 오히려 기대하지 않았던 가족들 중 아버지와 사촌동생이 블레싱 집회에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의 거절로 실망 속에 있던 저는 예상하지 못했던 가족들의 화답에 정말 기뻤습니다. 그렇게 블레싱 당일 아버지는 몸이 편찮은 삼촌과 교회에 거부감이 있던 어머니와 함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다녔었지만 교회보다는 자신의 진로가 중요해서 교회를 멀리했던 사촌동생도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한 감동과 기쁨이 머무는 시간이었습니다.

블레싱 이후 저는 기도할 때 매년 진행되는 블레싱이기에 행사에 익숙해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을 가볍게 여기는 제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한없이 저를 사랑하고 계심을 알고 있음에도, 정작 저는 그 사랑이 존재함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족들을 잊고 있었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목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목자로서 매 주일 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목장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사랑이 필요함에도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은 절실한 마음으로 찾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번 블레싱은 저에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더없이 크고, 결코 포기가 없으신 사랑을 다시 한 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사랑에 동참해야 함을 되새기는 기회였습니다. 앞으로 블레싱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온다면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기 보다는 적극적인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삶을 부지런히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구촌

내 생애 최고의 순간

청년2지구 김혜승

나의 인생을 책 한 권으로 출간한다면 그 책의 첫 페이지, 첫 줄은 이렇게 작성할 것입니다.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은 2023년 11월 5일 14시, 블레싱의 순간이었다!"

2023년 11월 5일 2시 예배, 부모님과 함께 처음으로 지구촌교회에서 주일예배를 드렸습니다. 내색하지 않았지만 그날을 준비하며 졸인 마음들, 당일 교회를 가기 위해 부모님과 함께 대문을 나선 발걸음, 예배당에 들어선 순간의 설레임. 무엇 하나 생생하게 기억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처음으로 교회에 함께 온 그날의 감동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배시간 찬양을 들을 때, 찬양을 할 때, 성경구절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기도를 할 때.. 매분 매초가 모두 가슴 벅차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 보시기에 교회에서 우는 딸의 모습이 생경하실까 봐 꾹꾹 눌러 감정을 참았습니다. 농부가 땅에 씨앗을 뿌리기 위하여 밭을 갈아 자갈을 골라내고, 잡초를 뽑고, 거름을 주는 노력을 하였듯 제가 지구촌교회에서 생활한 모든 신앙생활은 씨앗을 뿌리기 위한 준비과정이었음을 불현듯 깨달았습니다. 예수제자훈련을 수료하기까지 힘들었지만, 예수제자훈련을 함께 수료한 형제·자매들이 부모님께 예수님을 전해 주었고 예배시간보다 일찍 교회에 도착하여 안내사역을 해야 함이 부담스러웠지만 예배안내사역을 함께 하는 형제·자매들은 7층 입구에서 부모님을 열렬히 환영해 주었습니다.

목장식구들은 블레싱에 오실 부모님을 위해 매주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부모님께서 블레싱 축제 VIP로 교회에 오실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경험한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서툴고 성실하지 않은 농부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씨앗을 땅에 갓 심었습니다. 가뭄과 태풍, 홍수와 지진 등이 도사리고 있겠지만 결코 두려움은 없습니다. 제 곁에는 따뜻한 햇살과 충분한 빗물, 그리고 농부의 땀을 시원하게 식혀 줄 산들바람까지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든든한 배경으로 땅에 묻어 둔 귀한 씨앗이 싹을 틔우고, 큰 나무가 되도록 보살피는 신실한 농부가 되겠습니다. 농부의 역할은 그저 하늘의 뜻에 따라 작물을 보살피는 것이 될 것입니다. 블레싱의 기적 2023년 11월 5일. 그 감동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모든 도움의 손길과 기도를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촌

친구도 세 겹 줄의 한 부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청년1지구 마가촌 길진생예목장 조주희

"시간이 너무 잘 가네ㅠㅠ 갑자기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연락해써ㅋㅋㅋㅋㅋ"
블레싱을 앞두고 친구 B에게 연락하려 정해 놓은 날, 친구 A에게 온 문자였다. A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이미 수차례 전도를 시도해 본 친구였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 올해는 타깃을 B로 바꿨는데, B에게 연락하려 정해 놓은 바로 그날, A에게 먼저 연락이 온 것이었다. 그 순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주님이시다.'

나는 친구 B를 초대하려던 기존 계획을 바꿔 친구 A를 블레싱에 초대했다. 작년에도 나를 통해 블레싱에 왔던 A는 거절하는 대신 '자꾸 그날만 가서 선물만 받아 오게 되는 거 아닌가 괜히 찔린다'며 의외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주었다. 나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긍정적 반응이었다. 작년 블레싱에 온 A가 그다지 즐거워하지 않았다고, 사실 그간 생각해 왔기 때문이었다. 그 순간 나는 다시 느낄 수 있었다.

'정말 주님이시다…….'

A를 놓고 평소 기도는 꾸준히 해 왔었다. 매일 기도하는, 주님께 구원을 부탁드리는 사람들 이름 중 A의 이름이 있어 온 것이었다. 그럼에도 A가 교회에 온 블레싱 당일조차 나는 A가 주님을 영접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A는 블레싱 당일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겨 교회에 늦게 도착했고, 우리는 찬송을 부르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올해도 이렇게 가는구나, A의 마음은 여전히 닫혀 있나 보다.'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사실 이미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던 A가 옥구슬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게 아닌가…! 친구를 데려왔는데 친구가 설교 말씀을 들으며 울더라, 나는 이런 이야기를 그동안 간증으로만 들었었다. 내게, 내 친구에게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는 상상해 본 적조차 없었다. 나는 그저 속으로 놀라워하며 전능하신 주님, 불가능이 없으신 우리 주님만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

추후 식사 교제 때 A는 최근 겪은 어떤 사건 때문에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이 주님께서 본인에게 해 주시는 말씀으로 들렸다고 했다. 또한 자신에게 일어난 일련

의 사건들이 모두 주님의 계획하심이었음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계심을 느끼게 되었다고 했다. A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미리 일하신 것이었다. 나는 그저 또다시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 A는 지난 주일에도 예배에 참석했다. 하나님께서 정말 계신 것 같지만 아직 교회에 매주 올 자신은 없어 더욱 눈물이 났다는 A가 앞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나날이 깊어지길 간절히 기도하며, 마지막은 기도의 힘에 대한 간증으로 마치고 싶다.

작년 블레싱에도 A를 초대했었다. 그러나 그때 아무리 노력해도 A는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었는데, 작년과 올해의 차이가 있다면, 올해는 내가 속한 공동체 동역자들에게 A에 대한 기도를 부탁했다는 것이다. 나 혼자 고군분투할 때 안 되던 것이 기도의 동역자들이 생긴 후 해결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며 나는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중보기도의 능력을 느낄 수 있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성경 말씀이 생각난다. 내 소중한 친구 A도 어서 빨리 이 세 겹 줄의 한 부분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구촌

JIGUCHON PHOTO

블레싱, 못다한 이야기



직장동료를 예비해 주신 하나님

청년1지구 다니엘촌 기쁨샘목장 이은미

어린이집, 같은 반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선생님께 '찾아가는 블레싱' 참여를 가볍게 제안하였는데, 두 분이 흔쾌히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처음 했고, 당연히 거절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겠다는 말에 제가 더 당황하여 설명도 없이 이야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부담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오겠어?'라는 생각을 하며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찾아가는 블레싱' 한 주 전이 되어 시간도 물어보고, 동료 선생님이 참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당일 설교와 목장 모임이 부담스럽지는 않을지 염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블레싱 당일이 되어 하나님께서 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식사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동료 중 한 선생님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해 보았고, 현재는 교회를 다시 다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또 다른 선생님은 자신의 이모가 크리스천인데, 지방에서 올라올 때면 지구촌교회 수지채플에 가서 1년에 한 번 정도 이모와 함께 예배드리는 경험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해 주었습니다. 당일 비 예보가 있었지만 비가 오지 않았고, 동료의 이모께서 "하나님이 교회 가는 것을 축복하시나 보다"라는 말을 해 주어 동료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을 주셨나?'라는 생각을 하며 교회로 왔다고 했습니다. 식사 교제하는 동안 의도하지 않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누어져 정말 감사했고, 많은 동료들 중 저와 같은 반 선생님이 지구촌교회 수지채플을 가 보았다는 것도, 그런 선생님을 올해 같은 반으로 배정하여 제 곁에 있게 하셨다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같았습니다.

식사 교제가 끝난 뒤 선생님들과 목장 모임 장소로 이동하였는데, 모든 목장원들이 자신의 VIP처럼 따뜻하게 반겨 주고 섬겨 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낯도 많이 가리는 목원들이 질문도 해 주고, 블레싱의 경험도 나누어주는 모습에 건강한 공동체에 소속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배 후 선생님들은 "교회분들은 참 따뜻한 것 같다, 다음에 모일 기회가 된다면 또 가 보고 싶다!"라는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경험이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길 바라며, 그 과정에 저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구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청년1지구 여호수아촌 예감목장 이지선

남00 언니는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서 처음 2년을 함께 근무했던 직장 동료입니다. 언니는 저보다 3주 정도 먼저 근무하고 있었고, 언니는 제가 처음 병원에 적응할 시기에 가장 많이 업무에 대해서 잘 알려주었고, 항상 제 편이 되어 도와주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항상 고마움이 많은 언니에게 제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2년 전 언니가 몸이 많이 아픈 상황이 생겼고, 저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XEE전도폭발훈련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에 억지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는데, 오히려 언니가 먼저 제게 제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물어보았고, 하나님께서 저보다 앞서 일하고 계시고 마음을 만져주고 계셨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영접기도를 하고 난 후 언니가 기뻐하며 했던 말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 것 같아. 내 주변에 크리스천 친구들을 많이 주셨어. 근데 가장 의문인 건 왜 그들 중 단 한 명도 내게 지금까지 교회 같이 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했던 말에 크게 부끄러웠고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지나 다른 언니, 동생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에서도 "나 이제 예수님 믿을 거야."라고 하면서 언니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른 언니 동생한테 소개하는 모습을 보는데도 그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블레싱에 계속 초대하고 종종 교회 가자고 했지만, 마음의 준비가 되면 가겠다고 거절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전에 했던 말과 달라 많이 황당하기도 하고, 제가 조바심을 내고 낙심하고 좌절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결국 전도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벽하게 인도해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게 하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같이 시편 읽자고 했을 때 함께 말씀 읽는 시간들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번 블레싱도 언니가 생각나서 다시 초대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흔쾌히 가고 싶다며 기대된다고 하는 말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니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인도해주고 계심에 감사했습니다. 원래는 목장모임도 부담스러워서 가고 싶지 않다고 그랬었는데, 당일에는 오히려 가고 싶

다며 밥 먹고 가자고 그래서 가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교회에 처음 나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게 너무 감사했고, 목장식구들도 따뜻하게 환영해 주고, 마주친 친한 동역자들도 너무나 밝게 환대해 주어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언니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셨던 동역자들에게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일터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해 사람을 많이 경계하게 된 언니가, 집에 가면서 말씀도, 사람들도 좋았고, 마주친 사람들이 꿈에 나왔던 것 같다, 익숙하다고 말한 것도 신기했습니다. 물 떠온 하인에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과정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제게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해 주신 것도 감사했습니다. 언니와 앞으로 함께 동역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하길 소망합니다. 지구촌

오랜 친구와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신 하나님

청년1지구 이사야촌 최지원

이번 블레싱에 초대한 VIP 00이는 저의 가장 오래된 친구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같은 반 친구가 된 이후로 18년간 항상 저의 옆에 있어 주었던 가족 같은 존재입니다. 처음에 전도를 하게 된 계기는 사실 제가 이야기를 꺼냈다기보다는 00이가 먼저 교회가 궁금하다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요즘 회사생활이 너무 힘들어. 근데 너처럼 교회를 다니면 조금이라도 의지가 되고 맘에 위로가 될까?' 하는 물음에 저는 물론이라고 언제든지 말만 꺼내면 목장모임과 예배를 같이 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원래 00이는 항상 자신은 무교라고 말했고, 종교에 전혀 관심이 없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가 요즘 너무 힘들다면서 교회가 궁금하다는 그 말이 신기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바로 교회로 끌고 가면 부담이 될까 몇 주 동안 먼저 교회에 가겠다고 연락이 오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고 몇 주 뒤에 이제 교회를 갈 상황과 마음의 준비가 다 된 거 같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블레싱 기간과 맞아 떨어져 뭔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타이밍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00이와 첫 목장모임과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00이는 교회에서 겪는 모든 상황들을 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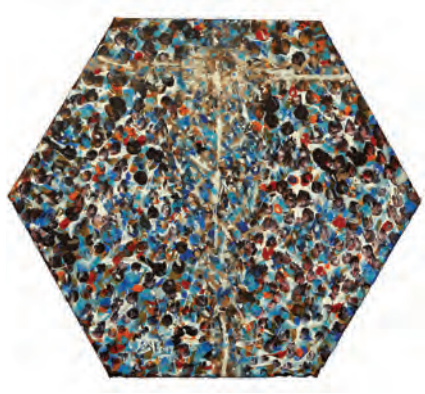
설어하고 신기해하면서도 전혀 거부감 없는 모습들을 보여 줬습니다.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교회 등록도 하고 갈래?”" 라는 말에 스스럼없이 그러겠다는 00이를 보며 오히려 제가 당황할 정도였습니다. 교회를 처음 다니는 00이는 모든 것이 다 처음이라 목장모임도 설교도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어렵고 낯선 것들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설교를 받아 적어 예배 후에 저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묻고, 유튜브에서 어린이 설교를 찾아보면서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00이를 보면서 처음에는 그저 신기하고 00이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열심일까 그저 궁금했습니다.

그러다가 설교 중에 00이의 직업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설교 후 기도시간에 울면서 기도하는 00이를 보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 했고, 기도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00이가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걸 보면서 00이의 심적인 고통이 안쓰러우면서도 성령님께서 '00이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싶어 저도 같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 기도하면서 왜 울었냐고 물어보니 잘은 모르겠지만 오늘의 예배가 자신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는 다슬이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사랑을 느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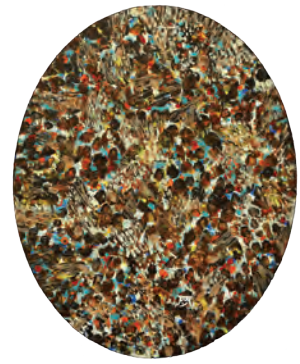
그 이후로 00이는 목장모임과 예배를 꾸준히 참석하면서 교회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00이의 교회출석이 단발성 이벤트가 아닐까 생각했지만 이제는 파웬까지 참석하는 00이를 보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가장 소중한 친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전도는 어렵게 다가왔는데 00이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은 다 타이밍이 있다는 걸 느꼈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결국 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계획하심 아래 있음을 느꼈습니다.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때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통로가 된다면 언젠가는 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블레싱이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촌

2023. 12.30(토) - 2024. 1.19(금) 분당채플 로비갤러리 & 뜨랑슈아카페 내

우명자 작가 단번에 영원히 (Once for All)



작품1) **Once For All 단번에 영원히 – 자유**
58.0 x 63.0 cm, 캔버스에 안료



작품2) **Once For All 단번에 영원히 – 축제**
63.0 x 73.0 cm, 캔버스에 안료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베드로전서 3:18a).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형상으로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오심으로써 그 언약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명료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은 이 선언 'Once for All(단번에 영원히)'을 통해 가장 궁극적인 인간의 숙제인 사망의 두려움에서 해방시키시고 사랑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같은 놀라운 사실이 저의 경험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작가로서의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은 예배자로서 주를 향해 자신을 올려 드리는 '드림의 행위'요, '신앙고백' 입니다.

'단번에 영원히 - Once for All'

작품 속 다양한 이미지들은 이 선언의 주체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이 우리에게 현실적 사실이 되는 현장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세종대학교 미술학 학사, 석사, 백석대학교 미술학 박사
미국 Northern Baptist Seminary 신학 연구
Toledo Museum institute of Art 수료
워싱톤 Corcoran School of Art 서양회화 연구
전 백석전문대학원 출강
1970~ 개인, 초대전 및 그룹전 다수
저서: <들러리의 기쁨>, <루오의 삶과 작품에 나타난 기독교 영성>

2024. 1.20(토) - 2024. 2.16(금) 분당채플 로비갤러리 & 뜨랑슈아카페 내

윤정원 작가 **주께로 가까이 (Close to Thee)**



작품1) **The Burning Bush**
65.0 x 50.0 cm, mixed media on canvas, 2023



작품2) **Anywhere**
100.0 x 80.0 cm, mixed media on canvas, 2023

2024년 첫 달이기도 하고, 교회에서 열리는 의미 있는 전시여서 그동안 틈틈이 해 왔던 십자가를 비롯한 세라믹 작품들과 성경 말씀 주제의 작품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다가서는 2024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구촌



서울예고,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졸업
새로운 형상과 정신전
채묵형상전
갈물한글서회전
수요일 오후 2시전
바실레이아전
개인전 지구촌갤러리(2024)
Email) 0527angel@naver.com

엄마와 딸
이성적인 엄마와 감성적인 딸



이혜진
분당6지구 탄천 은혜6목장

Y는 엄마에 대해 양면적인 생각을 하는 대학생이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워킹맘이었고, 그 와중에서도 집안일을 다 해내는 슈퍼우먼이었다. 딸이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들어주고, 해결해 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엔 일이 발생했다. 좋을 때는 한없이 좋고, 어떤 상황에도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엄마가 자신이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엄마는 "우리 딸, 힘들지?"라는 애기보다는 "휴학을 할래? 아니면 어떻게 하고 싶어?"라고 묻고 그것을 해결하기 바빴다.
그런 엄마를 볼 때면, 엄마를 롤모델 했던 그 자신에게 혼란감이 들었다.
'정작 심리적으로 힘들어지면, 엄마에게 기대기가 힘들구나' 하는 좌절감이 컸다. 엄마의 영향을 받아,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결과물에 관심과 집중하는 삶을 살았던 Y이지만, 이번에는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으면서 사실은 따뜻하고 '괜찮아, 그동안 힘들었겠구나' 하고 시작되는 말이 진심으로 듣고 싶었다. 왜냐하면, Y의 심리적인 고통이 매우 컸기 때문에, 이 고통을 함께해 주는 사람으로서의 엄마가 필요했던 것이다.

엄마를 롤모델하는 딸들이 있다. 엄마의 따뜻함, 엄마가 보이는 커리어우먼의 당당하고 일을 하면서 뭔가 발전적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여성상, 엄마의 슈퍼우먼적(的)인 모습, 엄마의 외모, 엄마의 사회성, 엄마의 능력을 롤모델하는 딸들을 상담에서 볼 수 있다.
상담에서는 엄마와 사이가 좋지 않은 딸들이 호소하는 문제들로 가득 차기도 하지만, 가끔은 이렇게 엄마를 롤모델하는 딸들을 본다. 엄마의 감성적인 부분들보다는 엄마가 보이는 외적인 모습을 롤모델하는 딸들을 더 보게 된다.

그래서일까. 엄마를 닮고자 공부, 대학, 성적, 진로를 높게 잡고, 엄마처럼 살고자 한다. 그런데, 그렇게 엄마의 인생처럼 살다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엄마의 인생을 닮고 싶어하기만 한다.



자신의 현실적인 위치는 보지 못하고 높은 이상을 가지고 살게 되면서, 감정적으로는 힘든데 무엇이 힘든지 모르는 상태가 이어지게 된다. 진짜의 나는 '이렇게 살다가는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고장이 나겠어. 위험해!'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 마치 '그건 엄마의 삶이지, 너의 삶은 아니야'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은 메시지. 상담하면서 엄마가 일하는 딸 중에, 엄마의 삶을 동경하는 딸들이 종종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엄마를 롤모델하는 것은 멋진 일이다. 하지만, 엄마의 삶과 내 삶을 분리하지 못하는 것은 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다. 엄마는 엄마대로, 나는 나대로의 삶이 있고, 성격이 있고, 좋아하는 것들이 있고, 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능력들이 있고, 체질들이 있다. 개별화를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엄마의 성격과 내 성격은 다르다. 성격검사를 해서 같은 유형이 나올 수 있지만, 지문이 다 다르듯, 미묘한 성격까지 같을 수는 없다. 엄마를 닮아 가려고 노력할 수는 있지만, 나만의 고유성도 있다. 엄마는 이성적이고 문제 해결적이지만, 나는 이성적이지만 문제 해결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인 터치가 더 중요한 사람일 수 있다. 그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내가 힘들 때 필요한 것이 문제 해결적인 엄마가 아니라, 감성적인 터치가 있는 엄마라면 문제 해결적인 모습을 보일 때 나 자신은 진정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느껴지지 않게 된다. 그리고 왠지 모를 소외감에 심리적으로 더 불안해질 수 있다.

Y는 상담하면서, 엄마와의 관계를 깊이 있게 보기 시작했다.

사실 엄마와 친하면서도 무슨 일이 있으면 엄마에게 다 얘기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심리적으로 힘들 때 엄마와의 관계는 친밀감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더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웠다. 엄마와의 관계가 지금 겪고 있는 불안과 관련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서야 자신이 무엇을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부모를 동일시하고 모델링하는 것만으로도 건강하게 자신의 가치를 정립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만큼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기도 하다. 부모가 자식에게 보여 주는 자신의 모습이어서 부모로서는 그만큼 책임감을 느껴야 하기도 하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자식에게 보여 주는 따뜻함과 수용, 공감이 더해져야 한다. 그것은 부모의 성향이 어떠하든 간에 필요한 덕목이다.

사람은 힘들 때, 자신을 보호해 주고, 위로해 주고, 수용해 주고, 얘기 들어 주고, 공감해 주는 사람을 원한다. 그것이 부모와 자식 간에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바탕이 되었을 때 아이는 힘을 얻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교과서 같은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부모로서 해야 할 역할 중에 첫 번째가 아닐까 싶다. 아이의 마음이 상하지 않고, 아이의 마음이 아프지 않고 외롭지 않고, 소외감 느껴 차가움을 경험하는 그것보다는 낫지 않은가.

Y는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엄마와의 관계를 다져 가고 있다. 그렇게 엄마와의 관계를 재건하면서 그녀는 안정감과 세상 속에서 버틸 힘을 얻을 것이다.

엄마가 주는 공감과 따스함으로. 지구촌



(나다움심리상담센터소장 / 상담심리전문가&임상심리사)

칭찬은 사랑입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잠언 27:21

1063℃
도가니에서 금이 녹는 온도입니다.
귀한 금이지만 불에 녹여 연단하지 않으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1063℃ 이상에서 불순물을 없애야만 귀한 순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강한 훈련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모두 좋은 선수가 되지는 못합니다.
오래 공부하고 많은 지식을 쌓았다고 훌륭한 사람이 되지도 않습니다.
뛰어난 선수, 존경받는 위인은 칭찬의 바다에서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꾸중과 질책은 사람을 넘어뜨리지만 한마디 칭찬은 사람을 세워 줍니다.
칭찬과 격려는 부족한 내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지구촌

글·사진 | 오도연 장로

나의 산티아고



이계원
분당5지구 밀알3목장

하페: (이 길을 걸으면 누구나 밑바닥까지 흔들린다. 혼자 걷지 않으면 그 길은 비밀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내 안에서 커다란 종이 울렸다. 그 소리는 계속될 것이다.)



산티아고 순례길 걷기! 누군가의 버킷 리스트에 있을 법하다. 코미디언 하페는 공연을 마친 후 쓰러진다. 담낭 제거 수술이 끝난 뒤 의사는 그에게 스트레스 과다로 죽을 수도 있다며 3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진단을 내린다. 누구든 앞만 보고 달려온 삶이 삐거덕거릴 때가 있다. 이미 몸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자신만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가 완전히 고갈된 다음에야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 지금 하페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 쉼'이다. 오늘의 주인공은 계획에도 없는 길을 떠나게 된다.

그런데 쉬는 것도 쉽지 않다. 무료한 시간을 보내던 그는 TV에서 나오는 소리에 귀를 쫑긋한다. "신을 찾는 일은 어떨까요? 요즘은 뭐든 편안히 앉아 처리할 수 있는데 먼 길을 떠날 필요가 있나요?" 그는 '의심과 간절함'을 품고 42일간의 여정을 시작한다.

길을 떠난다는 것은 자신을 만나는 첫 걸음이다. 감정이 고양된 그는 삶을 글로 써 보고 싶다는 욕구가 생긴다. '중요한 것은 걷는 것이다. 전 구간 완주하기!' 사람들의 인기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곳에서도 유명세를 치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그저 수많은 순례자들 중 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가 쓴웃음을 짓는다.

그는 게스트 하우스 대신 호텔에 묵는다. 발은 물집이 잡히고 운동화를 벗어 버려야 할 만큼 상태도 좋지 않다. '오늘의 교훈: 순례는 아프다!' 어쩔 수 없이 피레네 산맥을 넘어야 하는 구

간에는 소형 삼륜차의 짐칸을 이용한다. 스텔라와 레나를 만나 길동무가 되기도 하지만 그녀들은 혼자 걷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미안한데 그쪽이 싫어서가 아니라 혼자 걷고 싶어요… 목표에 도달하려면 혼자 가야 해요."

변덕스러운 날씨는 사람을 무력하게 만든다. 열악한 숙소에 질겁하던 그는 모텔에서의 총기 위협이라는 복병을 만나기도 한다. 길은 결코 녹록하지 않을 뿐더러 좀처럼 답을 주지 않는다. 아무리 혼자 걷는 길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그립고 대화가 절실해진다. 순례를 중단하기로 마음먹은 그를 친구들이 앞다퉈 말린다. "카미노에서 우린 목표가 각자 달라요. 언제 도착할지 미리 알지 못해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럼 다 허사가 되죠." 최대 위기를 맞았던 그가 다시 발걸음을 옮긴다.

그는 어느 돌무덤에 이르러 어머니가 남긴 돌멩이를 그곳에 올려놓는다. 신을 만나기 위해 혹은 용서받기 위해 길을 떠났던 순례자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중간에서 죽음을 맞았다. 하페는 그 순례자의 무덤 위에 엄마의 유품을 남긴다. 삶과 죽음이 사람의 손에 달려 있지 않음을 깨달았을까?

골목 어디쯤에서 어린 자신의 환영을 본다.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 버린 엄마,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신을 원망했고 사람들을 웃기는 직업을 갖게 되었던 과거를 뒤돌아본다. 그의 깊은 곳에서 울음이 터진다. 원인 모를 불안이라 생각했는데 원인을 몰랐을 뿐 원인이 없는 게 아니었다. 내면의 상처와 직면한 그는 자신을 다독이며 앞으로 나아간다.

가장 강인해 보였던 스텔라가 깊숙이 감추어 두었던 아픔을 꺼내 놓는다. 길의 아이러니다. 자신을 찾기 위해선 혼자 걸어야 하는 여정이지만 '따로 또 같이'가 없다면 치유는 불가능하다. 누구라도 중도 포기하려고 할 때 서로를 일으켜 세우고 용기를 주고 함께 가는 길, 그래서 우리의 길은 '홀로와 함께'가 필요하다. 마침내 대장정을 마친 그는 친구들과 벅찬 감동을 나눈다. '내 길을 돌이켜보니 무엇보다 분명한 한 가지는 나는 매일 신을 만났다는 거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멀리 떠났던 주인공, 어쩐지 낯이 익다 했는데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오늘도 우리는 수만 개의 길 위에 서 있다. 어디쯤에서는 서로의 어깨를 내주거나 빌리기도 한다. 하페처럼 주님이 매일 나와 함께하셨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을 테니 걷기를 멈출 수 없다. 2024년, 새로운 출발이다. 지구촌

필자소개 지구촌 평생교육원 〈책과 영화에 빠지다〉, 〈소피의 책 읽는 시간〉 강사 / 판교 현대문화센터 〈세상의 모든 영화〉 강사

기타 연주로 하나님께 찬양을!



이난희
기타초중급반 분당우리교회

부족한 제가 지면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지구촌평생교육원에서의 기타 수업을 통한 은혜를 나눕니다.

개인 지도로 기타를 배워 보았지만 워낙 기초가 부족해서인지 진도가 잘 나가지 않았고 힘들었습니다. 우연히 지인을 통해 지구촌평생교육원에 기타 수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바로 등록을 하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기초반이었지만 이미 몇 번에 걸쳐 수업을 듣고 있는 분들이 있었기에 잘 따라갈 수 있을지 염려가 되었지만 초급반 이유애 선생님께서 조목조목 짚어 주시며 잘 가르쳐 주셔서 자신감을 갖게 되며 흥미가 생겼습니다. 결석하지 않고 꾸준하게 배우다 보니 비록 실력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중급반으로 올라가며 기타 수업은 더욱 재미있고 기다려졌습니다.
김미라 선생님의 다양한 수업 방법이 좋았고 초급·중급이라는 한계를 구분하지 않고 쉬운 곡도 어려운 곡도 배우며 도전해 가면서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 기울여 주시는 모습에서 깊은 배려와 섬김의 마음 또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기타 수업 외에 주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부분이 많이 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은해 선생님을 통해 마치 연주반에 있는 것 같은 수업방식에서 자신감을 훌쩍 뛰어넘게 해 주셨습니다. 비록 제 기타 소리는 아직까지는 아름답지 못하지만 자신감을 갖고 꾸준히 배워 갈 수 있게 해 주신 세 분의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기타 연주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에 더욱 은혜롭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는데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기타로 연주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이 귀하고 귀합니다.
기타 연주를 통해 찬양을 더욱 아름답게 배울 수 있어 감사하고 다 함께 연주하며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은 배움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주님을 향한 작은 예배의 시간이 됨을 감사드립니다.

2024년 다시 시작되는 한 해 새롭게 꾸는 꿈이 있다면 차근차근 잘 배워서 작은 공동체의 예배의 자리에서 기타로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리고 싶은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언제든 기타가 있다면 어떠한 자리일지라도 찬양과 연주로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지구촌평생교육원에서 기타 수업은 하나님 안에서의 특별한 수업이기에 많은 분들께도 권하고 싶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지구촌교회에도 감사드리며, 꿈을 꾸게 하시고 이루어 주신 하나님,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지구촌

JIGUCHON NEWS

글로벌청소년오케스트라 & 글로벌청소년합창단 16회 정기연주회



12월 14일 오후 7시 수원 IAM센터에서 우리 교회가 운영하는 글로벌청소년오케스트라와 글로벌청소년합창단의 제16회 정기연주회가 열렸습니다.
겨울에 어울리는 합창과 교향곡 중심으로 홈스쿨 학생들이 다양한 악기와 목소리로 부모와 가족들 앞에서 솜씨를 뽐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구촌

왜 밤에 감기 증상이 더 심해지는가요?

우리는 왜 잠자리에서 기침이 더 자주 나고 코를 더 훌쩍거리게 되는지, 그리고 보다 나은 수면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문가들에게 물었다.



코훌쩍이는 소리가 당신에게는 마치 교향악단의 연주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

감기 걸렸을 때 당신을 가장 괴롭히는 주 증상이 기침, 발열, 두통 또는 콧물 혹은 코막힘 등에 관계없이 당신은 증상이 낮보다 밤에 더 심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은 단순히 '그런가?' 하는 느낌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의 원인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요소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몸의 체내시계인 서카디안 리듬이 그것들 중의 하나다. 해가 지면, 약 24시간 주기를 갖는 이 서카디안 리듬은 우리의 두뇌에 침대에 누우라는 신호를 보내고 동시에 어떠한 특정 면역세포들을 자극하여 그들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한다. 매일 밤, 이들 면역세포는 바이러스나 세균 등 체내로 침투하는 병원체들을 막기 위해 인체의 여러 부분에서 보강된다.

"면역세포들이 침투한 바이러스를 확인하고 격퇴시킬 때, 이들은 과민증과 염증을 유발시키고 이 때문에 결국 밤에 호흡기 증상들이 더 심하게 되는 것입니다"라고 미국 세인트 주드 어린이 연구병원(의 소아감염병 전문가인 디에고 히자노(Diego Hijano) 박사는 말했다.

코티솔(cortiso) 등의 어떤 특정한 호르몬들 역시 이 서카디안 리듬을 따라간다. 코티솔은 아침에

농도가 제일 높아서 낮 동안 염증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호흡기 증상들을 경감시켜 준다. 저녁에 코티솔 농도는 점차 낮아지기 시작하고 그 증상들은 다시 심해지기 시작한다.

밤에 기침과 감기 증상들을 악화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은 코 및 부비강(副鼻腔)에서 과도하게 생성된 점액이 우리가 누울 때 목구멍 뒤쪽에 고이기 시작하는 후비루증후군(post-nasal drip, 後鼻涙症候群)이다.

"낮 동안에는, 점액이 많이 생성되어도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당신이 서 있거나 움직일 때는 중력(重力)의 영향으로 점액이 축적되지 않고 아래쪽으로 배출되기 때문입니다"라고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대학교 케크 의과대학의 가정의학과의 후안 치리보가-후타도(Juan Chiriboga-Hurtado) 박사는 말했다. 그러나 당신이 밤에 자리에 누워 있을 때는 점액이 축적되고 이것은 본능적으로 기침을 유발시켜 당신의 기도(氣道)를 깨끗하게 한다.

밤에 주위에 정신 산란하게 하는 것이 없는 것은 일반적으로 잠자는 것에는 좋은 일이지만, 역시 목구멍이 간질간질한 것은 당신이 그냥 무시해 버리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건조한 실내 공기 같은 침실 환경 상태는 당신의 기도를 자극할 수 있다고 치리보가-후타도 박사는 말했다.

알레르기, 천식 그리고 위식도 역류 질환 같은 다른 질병들에서도 감기의 경우와 많은 같은 이유에서 밤에 기침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고혈압 치료제 같은 약물들도 역시 당신이 밤에 기침을 더 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일반 감기에 걸린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밤중의 기침은 5~7일 안에 다른 증상과 더불어 사라질 수 있다고 치리보가-후타도 박사는 말했다. 경우에 따라 기침은 2주 혹은 그 이상 오래 남아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3주 후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원인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의사에게 진단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떻게 밤에 기침을 멈추게 할 수 있나

다행히도, 밤에 기침을 비롯하여 다른 감기 증상들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가정 요법들이 있다. 히자노 박사는 점액을 감소시키고, 누울 때 후비루증후군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루 종일 많은 양의 음료를 마실 것을 특별히 권하고 있다. 또한 자기 전에 뜨거운 물로 목욕하기, 생리식염수 코막힘 스프레이 사용하기, 혹은 네티 팟(neti pot) 같은 코 씻는 주전자를 사용하여 콧속 세척하는 것 등이 점액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특히 스스로 코를 풀 수 없는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히자노 박사는 말했다.

당신은 밤 동안 비강에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 가습기 사용도 역시 고려할 수 있다. 실내 습도

레벨을 40~60 퍼센트로 유지할 때 호흡기 바이러스의 전파가 감소되고 당신이 감기 걸렸을 경우 기침 또는 코막힘 같은 증상이 완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수면을 취하는 동안 점액이 아래로 잘 빠지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개 베개들을 겹쳐 사용하여 머리를 높여 주는 방법도 시도할 수 있다. 유아들의 경우, 베개를 사용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매트리스 밑에 쐐기 같은 것을 넣거나 아기 침대의 한쪽을 높이는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고 히자노 박사는 말했다.



성인들의 경우, 덱스트로메트로판(dextromethorphan)을 함유하는 기침약은 기침을 하려는 충동을 감소시켜 고통을 경감시켜 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성분이 1일 복용량이 60 밀리그램 이상이면 향정신성 약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일반 종합감기약에는 1회 용량에 7.5~15 밀리그램이 함유되어 있어 규정된 용법으로 사용하면 1일 복용량이 60 밀리그램을 초과하지 않는다). 구아이페네신(guaifenesin) 성분을 함유하는 거담제(祛痰劑)는 점액을 묽게 하여 뱉어 내기 쉽게 만들어 준다. 이 화합물들은 각각 이 성분만을 포함하는 단일 제제로도 이용되지만 일반 종합감기약에 포함된 성분으로 이용된다, 어떤 종합감기약들에는 코막힘을 완화시켜 주고 후비루증후군을 경감시켜 주는 기능이 있는 항히스타민제도 또한 포함되어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심의위원회가 코막힘 증상을 해소시키는데 효과가 없다고 최근 밝힌 바 있는 페닐에프린(phenylephrine) 성분을 함유하는 제품들은 당신의 관심 밖에 두어도 된다.



목이 건조하고 따끔따끔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코프 드롭스 또는 꿀을 사용하는 것이 또 다른 옵션이 될 수 있다고 치리보가-후타도 박사는 말했다.

"잠을 잘 자야 회복이 빠른데, 기침은 정말 잠을 망쳐 버리지요. 그래서 무엇이든 당신을 편히 자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회복을 빠르게 해 줍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2023년 11월 20일 자(字) 온라인 뉴욕 타임즈 (New York Times) 지구촌

성탄주일예배 칸타타 2023. 12. 25.





	수지채플	분당채플
1부 오전 8시	주능력 찬양대 수지 1부 1. 찬양하라 만왕의 왕께 2. 아기 예수의 이야기 3. 마리아의 노래 4. 그곳에서 5. 즐겁게 부르는 크리스마스 노래 6. 누구를 위함인가 7. 찬양하라 만왕의 왕께	주섬김 찬양대 분당 1부 1. 빛의 축제 2. 오소서, 빛 되신 주여 3. 모든 백성들 기뻐하라 4. 가장 아름다운 이름 5. 기쁨의 성탄 노래
2부 오전 10시	주사랑 찬양대 수지 2부 1. 빛으로 나오라 2. 찬양해 노엘 3. 촛불카논-고요한 밤 거룩한 밤 4. 할렐루야 빛 되신 주	주영광 찬양대 분당 2부 1. 주의 길을 예비하라 2. 옛날 임금 다윗 성에 3. 구주 예수 나셨네 4. 높이 계신 주께 영광 5. 와서 경배하라 6. 하나님의 완벽한 선물
3부 낮 12시	주향한 찬양대 수지 3부 1.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2. 아기 예수 3. 찾아오신 예수 4. 허리굽힌 사랑 5.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주은혜 찬양대 분당 3부 1. 와서, 왕께 경배하라! 2. 약속된 하늘의 왕 3. 베들레헴의 거룩한 아기 4. 거룩하고 고요한 밤 5.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 가족에게 첫 번째 여행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지구촌사회복지재단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

"발달장애 아이를 혼자 키우며 경비를 생각하지 않고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해 줄 수 있어 너무 뭉클했습니다. 여건상 쉽지 않았지만 아이와 함께한 여행이 우리 가족을 지탱하는 선물 같은 여행이 되어 저와 아이의 마음속에 오래오래 간직될 것 같습니다"

[화성시 거주 이OO(44세, 엄마)]

지구촌사회복지재단에서는 2017년부터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 주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획일화된 물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맘 좋은 프로젝트(한부모 가정 희망물품 지원), 5월의 크리스마스(어린이날 서프라이즈 선물지원), 맘 좋은 힐링데이(가족별 자유여행 지원) 등 한부모 가정이 원하는 물품을 가족이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원사업 중, 한부모 가족이 원하는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맘 좋은 힐링데이'는 생계유지를 위해 열심히 달려온 한부모에게 따뜻한 위로와 가족 간의 행복한 추억의 시간을 선물할 수 있도록 가족여행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사역에 많은 관심과 신청이 있었으며, 그중 가족여행이 절실히 필요한 한부모 20가정을 선정하여 각자 원하는 일정과 장소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여행경비(가정당 60만 원)를 지원했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쌍둥이들과 가족여행을 가 본 가정, 갯벌에서 신나게 조개를 잡으며 웃고 떠들 수 있었다는 가정, 평소에 얘기하지 못한 마음속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던 가정, 아빠와 아들이 함께 편하게 쉼을 충분히 누리고 온 가정 등 각자의 상황에 맞춰 가족이 원하는 여행을 마음껏 하고 왔다고 합니다.

"혼자 가정을 지키다 보니, 쉬지 않고 일을 할 수밖에 없어 항상 미안한 마음이었는데 첫 여행을 이렇게 좋은 기회를 통해 다녀올 수 있어 감사했어요. 특히 첫째 아이와는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는 마음이 생겨서 엄마로서 너무 미안하고 평소 대화를 많이 못 나눴는데 여행에서 속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눌 수 있어 행복했어요. 이렇게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여행을 선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원시 거주 이OO(38세, 엄마)]





"제가 엄청 어릴 때, 가족끼리 다녀온 여행말고는 두 번째로 가 본 여행이었는데 제주도를 처음 가 볼 수 있어 너무 신기하고 좋았어요. 비행기도 처음 타보고. 엄마와 함께 좋은 날씨에, 예쁜 것들을 많이 보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는 여행이 되었어요."

[서울시 거주 김OO(19세, 자녀)]

홀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부모의 녹록치 않은 삶 가운데 지구촌의 세심한 손길은 큰 위로이자 용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생필품, 교육비 등 다양한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한부모와 그 자녀의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구촌사회복지재단에서는 한부모 가족의 생계적 지원뿐 아니라 심리적·정서적인 부분들까지 폭넓게 지원하고 위로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2024년에는 지구촌교회 창립 30주년에 발맞추어 다음 세대(Next Generation)를 위한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에 더욱 집중하고자 합니다.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이 개선된 교육환경 속에서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부방 조성 및 학습지원사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성도님들의 따뜻한 시선과 동역의 손길을 전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한부모 가족이 밝고 건강하게 웃는 날까지 지구촌사회복지재단의 발걸음을 응원해 주세요! 지구촌



온세대가 영적 근육을 키우는 지구촌 공동체 성경읽기 연대기순

2024년 지구촌 공동체 성경읽기는
이동원 원로목사님과 **최성은 담임목사님**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연대기순으로 읽는 1년 1독 성경읽기를 통해 **영적 근육**을 키워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읽기 안내

1 성경 1년 1독을 목표로 합니다.

2 개인, 가정, 목장교회에서 성경 읽기 표를 따라 하루 20분 창세기~요한계시록까지 **'연대기'** 순으로 통독할 수 있습니다.

3 성경 읽기 영상은 **'지구촌 공동체 성경읽기'** 유튜브와 홈페이지 내 **'지구촌 공동체 성경읽기'** 메뉴 선택 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읽기표는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4 **'권별 개관 영상'**은 **'유튜브 더보기 링크'**나 홈페이지 내 **'지구촌 공동체 성경읽기'** 메뉴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개관 영상 출처 : 바이블프로젝트

5 매월 발간되는 지구촌 비전지를 통해 가로세로 성경 퍼즐을 푸실 수 있으며, 지구촌 비전지를 받지 못한 분은 홈페이지에서 다운하실 수 있습니다.
*가로세로 퍼즐은 매월 2개씩 출제되며, 두 개의 퍼즐을 풀어 제출하시면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홈페이지Q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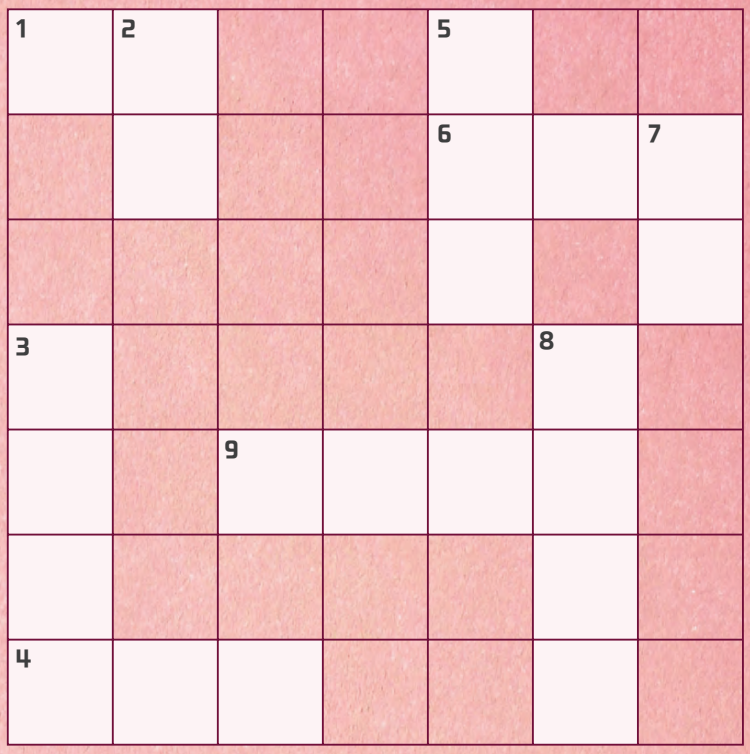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일 5:13

연대기순

온세대가 영적 근육을 키우는 지구촌 공동체 성경읽기

가로세로 성경 퍼즐

1월 창세기 | 이름(식별기호): _____ 소속지구: _____



내게 주신 말씀의 은혜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가로 성경 퍼즐

1. 방주를 지은 인물이며 모든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과 동행했던 의인 (창 6-10장)
4. 요셉의 가족을 위하여 바로가 준 좋은 땅 (창 47장)
6. 이삭의 아내, 아브라함의 종이 물을 달라고 할 때 낙타에게도 물을 준 여인 (창 24장)
9. 야곱의 새 이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 (창 32장)

세로 성경 퍼즐

2.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신 인물 (창 1장)
3.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인물 (창 5장)
5.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땅 (창 22장)
7. 아담의 아들, 분노에 눈이 멀어 동생을 살해한 인물 (창 4장)
8.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세운 곳 (창 21장)

* 가로세로 성경 퍼즐은 매월 2개씩 출제되며(앞뒤 한 장), 두 개의 퍼즐을 풀어 해당 가로세로 성경 퍼즐 양식을 잘라 제출함에 제출해 주세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제출함은 양 채플 안내 데스크(분당 8층, 수지 1층)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름과 식별기호, 소속 지구를 반드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촌교회 GLOBAL MISSION CHU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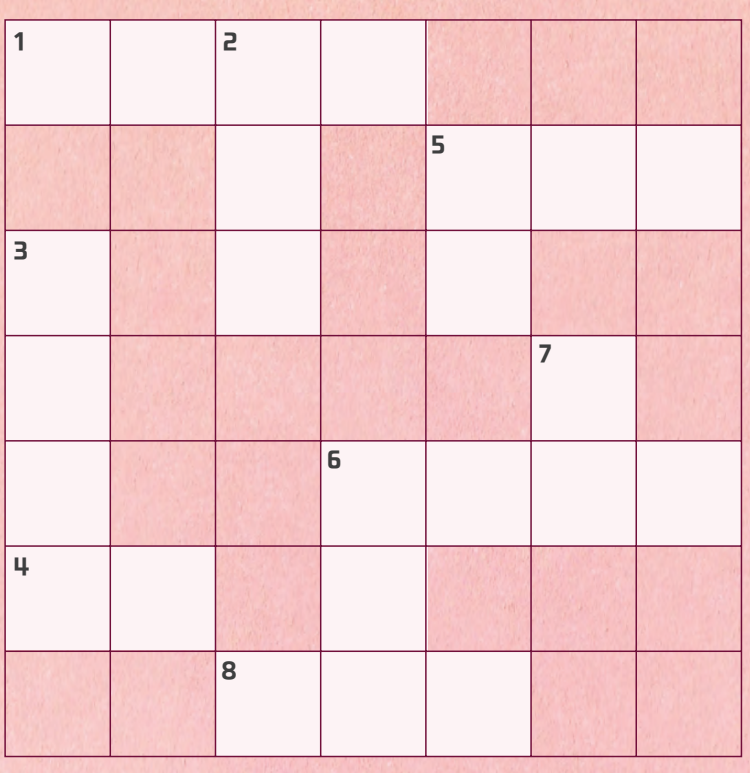
연대기순

온세대가 영적 근육을 키우는 지구촌 공동체 성경읽기

가로세로 성경 퍼즐

1월 출애굽기

이름(식별기호): _____ 소속지구: _____



내게 주신 말씀의 은혜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가로 성경 퍼즐

1.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은 이것을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했다 (출 32장)
4.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모세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물 (출 4장)
5.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 어린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있는 집 마다 장자의 죽음을 피했던 날 (출 12장)
6.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출 16장)
8.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실 때 밤에 사용하신 것 (출 13장)

세로 성경 퍼즐

2.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처음으로 싸운 족속 (출 17장)
3.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람들을 이끌고 싸운 인물 (출 17장)
5. 모세의 누나가 바로의 딸에게 어머니를 소개한 단어 (출 2장)
6.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 8번째 재앙 (출 10장)
7. 이곳의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가리키신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변했다. (출15장)

지구촌교회 정기집회 안내

수지채플 시간	수지채플 장소	구분	분당채플 시간	분당채플 장소
08:00	본당(4층)	**1부 예배**	08:00	본당(8층)
10:00		**2부 예배**	10:00	
12:00		**3부 예배**	12:00	
14:00		**더함예배** 장년/청년2/통일비전	14:00	
16:00		**홀리웨이브예배** (대학/청년1)	16:00	
05:30	본당(4층)	**새벽기도회** (월-토)	05:30	그레이스홀(로비층)
11:30		**향수예배** (수)	11:30	본당(8층)
		파워웬즈데이예배 (수)	20:00	
20:30	본당(4층)	**금요느헤미야기도회** (금)	20:30	
10:00		**시니어예배** (금)	10:00	

● 교육목장 주일예배

10:00 12:00	111호	**영아촌** 0세-36개월 (부모 동반)	10:00 12:00	702호
	110호	**유아촌** 4세-5세		701호
	208호	**유치촌** 6세-7세		703호
14:00	110호	**미취학 연합촌** 4세-7세	14:00	701호
10:00 12:00	201호	**유년촌** 초1-초2	10:00 12:00	710호
	203호	**초등촌** 초3-초4		711호
	207호	**소년촌** 초5-초6		712호
14:00	201호	**어린이 연합촌** 초1-초6	14:00	712호
10:00	202호	**중등마을** 중1	10:00	206호
	310호	중2-중3		210호
12:00	310호	중1-중3	12:00	206호
10:00 12:00	311호	**고등마을** 고1-고3	10:00	412호
			12:00	209호

● 장애인을 위한 주일예배

12:00	202호	**아름학교** 어린이/청소년/장년	10:00 12:00	105호, 106호
* 분당채플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행복한동행 예배**	12:00	L02호(L층)
		농아인 예배	10:00	L02호(L층)
			14:00	본당(8층)

● 글로벌목장 주일예배

* 분당채플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영어 예배**	장년	10:00	선교센터 (MD프라자) 올네이션스홀(B1층)
		청년	14:00	
		청소년	10:00	다니엘홀(701호)
		어린이		글로리아홀(8층)
		미취학		햇빛마당홀(B1층)
	몽골어 예배		10:00	에스겔홀(7층)
	중국어 예배		10:00	소피아홀(8층)
	중국어 주일학교		12:00	
	일본어 예배 / 일본어 주일학교		14:00	
	이주자 예배		13:30	글로리아홀(8층)

- 분당채플 3부(12시) 예배에 영어 동시통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구분	경기대채플 시간	경기대채플 장소	GMN채플 시간	GMN채플 장소	필그림하우스 시간	필그림하우스 장소	구리지구촌채플 시간	구리지구촌채플 장소
1부 예배							08:00	5층, 본당
2부 예배	10:00	텔레컨벤션센	10:00	GMN채플	09:20	겟세마네채플	10:00	
3부 예배	12:00		12:00		11:00	카리타스채플	12:00	
4부 (젊은이) 예배							14:20	
청소년 예배	10:00 12:00	복지관B207호					10:00	6층, 615호
어린이 예배		복지관B206호					12:00	6층, 614호
미취학 예배		복지관B202호					12:00	6층, 616호
수요예배					19:00	겟세마네채플		
금요비상기도회							20:30	5층, 본당
새벽기도							05:30	
토요기도회					19:00	겟세마네채플		

- 경기대채플에서는 미취학/어린이/청소년 예배가 동일시간에 진행됩니다.
- GMN채플 예배는 현장예배 회복으로 분당채플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수지채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48번길 48(신봉동)
대표전화 031-264-9191 팩스 031-270-8100

분당채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154번길 6(구미동)
대표전화 031-710-9300 팩스 031-710-9400
선교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52(MD프라자)

필그림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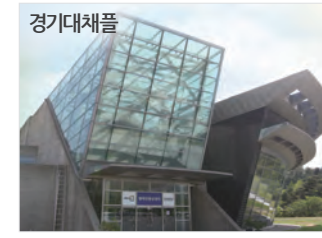
경기도 가평군 북면 가화로 1862
대표전화 031-589-7601 팩스 031-589-7610

GMN채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74번길 19(구미동)
대표전화 031-719-919 팩스 031-710-5961

경기대채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이의동)
대표전화 031-270-8230(주일전용)

구리지구촌채플



경기도 구리시 이문안로 86 5-6층(수택동)
대표전화 031-564-9291 팩스 031-569-9291



원고접수 및 안내

지구촌교회 홈페이지
(www.jiguchon.or.kr)**의**
❶우측 중앙 지구촌비전 아이콘 선택 후
❷원고접수 게시판에
❸사진과 원고, 연락처를 기재하고
관련 파일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 접수박스가 안 보일 경우 인터넷 메뉴줄 우측의 호환성 보기 설정 필요

원고접수게시판
바로가기

접수된 원고는 교정 과정에서 다소 수정될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지면 여건상 게재하지 못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지구촌교회 방송설교 안내

ON AIR 지구촌교회 홈페이지(www.jiguchon.or.kr)를 통해서 지구촌교회 **예배 생중계 시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시간 기준) **주일예배** 10:00, 12:00, 14:00, 16:00
향수예배 수요일 오전 11:30



◀ 지구촌교회 설교페이지 바로가기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지구촌교회 설교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인터넷	www.jiguchon.or.kr www.goodtv.co.kr	라디오	• **'생명은 빛으로'**(서울극동방송 FM106.9) 목요일 오전 9:00-9:30
모바일 (스마트폰 앱)	• **CTS라디오조이** 말씀채널 : 월 오전 3:30, 7:30, 11:30, 오후 3:30, 7:30, 11:30	TV 지구촌교회 방송시간	• **CTS** 화 오전 5:30-6:00「SKY LIFE(CH 183), QOOK KT (CH 236), BTV SK (CH291), U+TV LG (CH 269)」 • **CGN** 토 오후 7:10, 주일 오후 6:00 화 오전 7:20 이동원 원로목사(영어자막) • **GoodTV** 주일 오후 2:30 • **CBS** 토 오전 7:30-8:20

디아스포라 미션교회		
니이가타지구촌교회	639-2, Makio, Nishi-Ku, Niigata-Shi, Niigata, Japan	+81-25-201-8122
동경복음교회	2-45-9 Toukyoufukuinkyoukai, Higashinippori、Arakawa-ku, Tokyo, 116-0014, Japan	+81-3-3891-0747
동경지구촌교회	169-0073 T□ky□-to, Shinjuku-ku, Hyakuninch□, 1 Chome -9 -3, Japan	0574-86987477
상해지구촌교회	中國 上海市闵行区 宜山路 2328弄 30号 903室	+86-186-2172-9613
해밀턴 지구촌교회	33 charlemont st, Hamilton, New Zealand	+64-27-414-2777
호치민지구촌교회	B10-2 Nam Thien 2, Phu My Hung, 7, HCMC, Vietnam	+84-8-2211-9951-2
오클랜드지구촌교회	97 Onewa Road, Northcote, Auckland, New Zealand	+64-9-216-1177
닝보교회	1-1-1902, 338, ningchuan-Road, Yinzhou-district, Ningbo-city, Zhejiang-Province, China	0574-86987477
동 역 교 회		
기흥지구촌교회	경기 용인시 기흥구 사은로 217 (지곡동 456-2)	031-283-7991
글로벌지구촌교회	전남 나주시 그린로 357 스카이랜드빌딩 3,4층	061-332-0191
더뉴지구촌교회	서울 송파구 가락동 176 삼환상가 3층	02-431-6458
더라이프지구촌교회	경기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 85 우연프라자 7층(영덕동 986-8)	031-212-2291
동백지구촌교회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13(중동 847). 삼성타워2층	031-693-8291
동탄지구촌교회	경기 화성시 원고매로 168-1(중동 44-4번지)	031-8003-8253
라온지구촌교회	경기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13 (송동 여울보건지소) 5층	031-375-8891
만방샘 목장교회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91 덕유프라자 2층 .202호	031-896-0300
만들레지구촌교회	경기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448번길 96. 4층	070-7757-1201
세움지구촌교회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그내로 53번길 27-24(서천동 397-20)	031-205-1191
신동탄 지구촌교회	경기 화성시 동탄신리천로 278 리더스뷰프라자 3층(오산동 456)	031-376-3055
영광지구촌교회	서울 강동구 상암로61길 32 1층	010-2555-4642
온사랑지구촌교회	경기 광주시 오포읍 창뜰윗길6번길 8 (능평리)	070-4119-5941
죽전지구촌교회	경기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49 씨티프라자 7,8층(보정동 1208-2)	031-896-7070

협 력 교 회		
골드코스트 지구촌교회	170 Nerang Street, Southport, QLD 4215, Australia	61-433-60-9191
뉴비전교회	1201 Montague Expressway, Milpitas, CA 95035	408-719-0000
뉴저지 지구촌교회	70 Sheridan Ave. Ho-Ho-Kus, NJ 07423. USA	+1-201-445-0191
늘기쁜교회	경기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214	031-978-0121
더사랑지구촌교회	부산 영도구 영선대로 40	051-415-0831
동안교회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25길 67	02-962-0727
라이프스프링교회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230번길 42 아라프라자 4층	032-831-3775
목동 지구촌교회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379	02-2647-0191
베이커스필드 지구촌교회	25 Garnsey Ave. Bakersfield CA, 93309	(346) 317-8766
세종지구촌교회	세종 장군면 대교길 117-15	044-862-1441
송탄중앙침례교회	경기 평택시 탄현로 368번길 25 (독곡동 403-5)	031-665-2995
시목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시목3길 32 시목교회	043-269-1941
시애틀 지구촌교회	4900 168th St. SW Lynnwood, WA 98037	425-350-0191
아틀란타 지구촌교회	4480 Peachtree Corners Cir. Norcross, GA 30092	404-579-4570
영주침례교회	경북 영주시 명륜길 38 영주침례교회	054-634-2004
예일교회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008	051-518-4189
워싱턴지구촌교회	13421 Georgia Ave. Silver Spring MD 20906	301-460-1656
원주 온누리침례교회	강원 원주시 이화4길 50-11	033-748-0032
천안 지구촌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117번지, 201호	041-523-1191
춘천침례교회	강원 춘천시 성심로 47번길 99	033-254-4059
한몸교회	14100 Parke Long Ct. Suite K. Chantilly, VA 20151	(571) 719-2592

또다시 길을 떠나다

연규흠 권사
분당 6지구 직장자매마을 마을장

때로는 더 빠르게 달려갈수록
행복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했었지.
얼마나 빠르게 달렸는지
몇십 배나 키가 큰 나무 아래서
한 줌 햇볕도 발뒤꿈치를 들고 쪼여가며
꽃들을 피워 내는 제비꽃도 지나쳐 버렸지.
올망졸망 꿈들을 익혀 가는 신음도 듣지 못했지.

길은 언제 떠났을까?
기억조차 희미하게 걸어온 먼 길
되돌아보니 기쁨에 겨울 때도 있었지만
지치고 목이 말라 샘물이 그리울 때도 있었다.
갈림길에서는 더 좋은 길을 선택한 것 같았는데
오히려 발을 헛디뎠을 때처럼 주저앉고 싶은 적도 있었다.

그러나 바람이 길을 찾아가듯
순간순간 막다른 골목길 같은 곳에서도
여전히 길은 열려 있었다,
동행하여 주는 그분이 있었다.
말씀으로 간절한 기다림으로
울퉁불퉁 걸어온 나의 길조차도
또 하나의 이정표처럼 빛내 주시는 그분이 있었다.

오늘 또다시 새로운 길을 떠난다.
이젠 하늘도 더 자주 바라보고
일상의 사소하게 느껴지던 것들과도 눈 맞추어야겠다.
아, 이웃의 흔들리는 눈빛과 까르르 아이들의 웃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겠다. 지구촌

2024 겨울 **바이블 페스티벌**
2024 WINTER BIBLE FESTIVAL

30+ YEARS ANNIVERSARY

이단 분별 세미나

온전한 복음 위에 서라

1/17(수)~19(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요한일서 4:1

1/17(수) 오전 11:30
분당채플 본당



강성호 목사
예안교회 담임
대전예안상담소 소장

1/17(수) 오전 11:30
수지채플 본당



권남궤 목사
부산이음교회 담임
이음 이단상담소 소장

1/18(목) 오전 10:00
분당채플 본당



탁지원 소장
월간 현대종교 대표
웨이크사이버신학원 교수

1/19(금) 오전 10:00
분당채플 본당



김강림 강도사
초대교회 청년담당
구리이단상담소 상담사

등록기간 2023/12/31(주일)~2024/1/14(주일) 오후 5시까지
등록비 5,000원(당일등록비 10,000원)
등록장소 양 채플 등록센터(분당 8층, 수지 1층), 교회 홈페이지
문의 수지 031-270-8182, 분당 031-710-9417

지구촌비전 통권 285호 2024년 1월 7일 발행 발행처·지구촌교회 역사자료문서선교팀 031-710-9300 www.jiguchon.or.kr 비매품